

통(通) 이야기 설교가 신앙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나미비아 오카한자파크교회(Okahandja Park Church)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전경찬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1년 5월

Copyright © 2021 Kyungchan Jun

All rights reserved.

Tong Story Sermon for Faith Growth
: A Case Study of Okahandja Park Church, Namibia

Kyungchan Jun

Okahandja Park Church, Namibia

Namibia is a Christian country. Independent since 1990, 80 percent of this new country's population are Christian. Despite its short history, many churches have been established there and the existence of God, Jesus, and the holy spirit is well acknowledged in the African nation.

However, the preceding description of a Christian nation might not be all it is when examining closely. How many people attend church on Sunday? How many Christians keep their Bible near them? These are still in question in Namibia. Although it is a declared Christian state, people in Namibia have shown totally different aspects in real life and church.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concrete alternatives for restoring churches in Namibia.

For satisfying the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ong story sermon' based on 'Tong Bible.' The 'Tong Bible,' created by Ph.D. Byung-ho Cho is comprehensible by looking into the concept of 'Tong' and examining the way of 'reading through Tong Bible.'

Also, the study introduces 'Tong story sermon' based on 'Tong Bible,' through the case of Okahandja Park Church in Namibia where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works at.

It shows how preaching can influence the spiritual growth of the people of Okahandja Park Church when the believers hear 'Tong story sermon' based on 'Reading through Tong Bible.'

In particular, this program covers interviews with Christians and preachers as well, regarding a year of preaching about 'Tong story sermon' and 'Reading through Tong Bible.' The findings from the interviews indicate that the 'Tong story sermon' was highly effective. The 'Tong story sermon' has been a silver lining in the dark to the preachers in Namibia, where people's respect towards preachers almost faded away. In that year of hearing about the 'Tong story sermon,' the Christians were excited in every moment of preaching, taking a note when listening to it, and trying to engrave the Bible story on their heart. Furthermore, people started to try to understand the Bible not just through certain parts of it but through the whole context, comprehending it as one special story. From this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preaching has a huge impact on the spiritual growth of the Christians and preachers in Namibia.

The researcher hopes Namibian churches overcome current challenges through the principles and methodology of 'Tong story sermon,' hav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Bible and applying Bible stories to their real life. Si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ong story sermon,' which was based on the practical 'reading through Tong bible,' was confirmed, every Namibian church needs to pay attention to this program, proceeding with enthusiasm.

국문초록

통(通) 이야기 설교가 신앙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나미비아 오카한자파크교회(Okahandja Park Church)를 중심으로

전경찬

오카한자파크교회(Okahandja Park church), 빈트후크(Windhoek), 나미비아(Namibia)

나미비아는 기독교 국가이다. 인구의 약 80%가 기독교에 속한 국가이며, 1990년 독립한 신생국가이다. 비록 긴 역사를 가지지 못한 나라이지만, 이미 많은 지역에 교회가 존재를 하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미비아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하는가? 라는 질문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국가전체는 기독교 나라라고 선포하였지만, 실제 현장, 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오늘의 나미비아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통(通)’을 기반으로 한 ‘통(通) 이야기 설교’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通) 성경’은 조병호가 만든 것으로 ‘통통’ 개념과 ‘성경 통독’의 방법을 살펴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 나미비아 오카한자파크(Okahandja Park) 교회를 통해서 ‘통(通) 성경’을 기반으로 한 ‘통(通) 이야기 설교’를 제시하려고 한다.

과연 오카한자파크교회 성도들이 통(通)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성경 통독’ 을 기반으로 하여 ‘통(通) 이야기 설교’ 를 전하였을 때 신앙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1년간의 걸친 ‘성경 통독’ 과 ‘통(通) 이야기 설교’ 를 진행함으로써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통(通) 이야기 설교’ 의 말씀을 들을 후, 목회자와 교인들의 반응은 매우 효과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목회자의 권위가 죽어가고 있던 나미비아 목회자들에게 ‘통(通) 이야기 설교’ 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1년간의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은 매 순간 설교를 기대하고, 설교의 말씀을 적으며, 성경의 이야기를 간직하려고 하였다. 또한, 성경을 부분을 아닌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통해 목회자와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확인이 되었다.

나미비아 교회가 어려움을 느끼는 지금이야말로, ‘통(通) 이야기 설교’ 의 원리와 방법론을 통하여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성경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모든 나미비아 개 교회에서 실제적인 ‘성경 통독’ 을 기반한 ‘통(通) 이야기 설교’ 로 말씀을 선포한다면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에 모든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viii
그림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의의.....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II. 성경 통독의 본질	6
성경 통독의 요소	6
성경 통독의 성서적 배경	11
성경 듣기	13
III. 통(通) 이야기 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	19
통(通, Tong) 의 개념 정의	19
통(通, Tong) 성경 읽기란?	21
통(通, Tong) 성경 묵상.....	23
통(通, Tong) 이야기 설교(Narraphor Preaching)	26
IV. 회중의 상황과 통(通)독과 이야기 설교의 운영 실제	40
오카한자교회(Okahandja Park Church) 회중 상황	40
오카한차파크 교회의 성경 통(通)독 절차	45
성경 통독 실행 방법	53
성경 통독 프로그램 시간표	54

소그룹 결성.....	57
가정 성경 읽기	61
통(通) 이야기 설교의 절차	63
V. 결과분석: 오카한자파크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 이야기	76
성경 통독에 대한 분석	76
통(通) 이야기 설교에 대한 분석	87
VI. 결론	98
요약과 평가	98
결론과 제언	100
참고문헌	105

표 목차

<표1> 통(通) 성경 7Track 40줄기.....	28
<표2> 구약성경의 역사 순서 배열.....	31
<표3> 신약성경의 역사 순서 배열.....	32
<표4> 역사 순 365일 1년 1독 성경 통독 매일 성경 읽기표(1-3월)	47
<표5> 역사 순 365일 1년 1독 성경 통독 매일 성경 읽기표(4-6월)	48
<표6> 역사 순 365일 1년 1독 성경 통독 매일 성경 읽기표(7-9월)	50
<표7> 역사 순 365일 1년 1독 성경 통독 매일 성경 읽기표(10-12월).....	51
<표8> 성경통독 프로그램 시간표.....	54
<표9> 소그룹 모임 주제 및 주간 통독 범위.....	58

그림 목차

<그림1> 오카한자파크 교회 전경	40
<그림2> 오카한자파크 성경 통독 프로그램 모임	56
<그림3> 오카한자파크 성경 통독 프로그램 모임	56
<그림4> 오카한자파크 이야기 설교 진행 모습	71
<그림5> 오카한자파크 이야기 설교 진행 모습	72
<그림6> 오카한자파크 어린이 주일 학교	97

감사의 글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논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도 잠시, 이 논문에 감사의 글을 쓸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먼저 모든 사역과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큰 사랑으로 가르침을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으며,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설교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 이야기들이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셔서 이 논문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병호 박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역사순. 일 년 일독 통독 성경>은 저에게 큰 성경의 지침을 제공해 주었으며, 새로운 목회 및 선교 지침을 제공해 주신 레너드 스윗 박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카한자파크(Okahandjapark) 교회 당회원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그러한 교회에서도 온전히 신앙을 지키려는 많은 성도님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독을 함께 끝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가족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장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전하리, 전하라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전경찬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교회 청중에게 물어보는 순간 대답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설교를 들었을 때는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설교를 일주일 내내 기억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이는 성도들의 삶속에서 믿음이 실천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실제로 수년간 예배에 참석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과연 무엇에 기인되는 것일까?

본 논문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 본 연구자는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파악한다. 첫 번째는 청중들이 설교를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목회자가 청중들이 집중할 수 없게 어렵게 설교를 하였다. 설교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이다. 하지만 설교가는 이러한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용인하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가 서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설교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본 연구자가 섬기는 아프리카 나미비아 오카한자파크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 구절들을 열심히 외우고 기록을 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성경 구절들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구절을 편식하고 성경을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만으로 읽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성경을 수 없이 난도질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통하고 있으며 예수님 또한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통(通) 이야기 설교를 하였다. 과연 예수님은 많은 성도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성도의 삶이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설교 방법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았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예수님의 방법을 비추어, 필자는 성경 통독과 통(通) 이야기 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통(通) 이야기 설교 방법을 통해 청중들이 설교를 쉽게 기억하고,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였다. 따라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지금까지 전달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이야기로 보려고 하거나, 하나의 책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보려고 한다. 즉 이야기가 아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기인하여, 설교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청중들 입장에서는 성경이 이해하기 힘든 책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통(通)으로 보고 이야기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안하려고 하며, 이 방법이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싶다.

또한, 아프리카 현지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정규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성경에 빗대어 표현할 때가 많다. 그리고 듣는 청중도 그러한 목회자의 생각이 설교라고 인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通)으로 성경을 본 후에

통(通) 이야기 설교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제시하는 해결 방안으로 교회의 브랜드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이 발전됨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한국 교회 및 나미비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적용을 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경 통독과 통(通) 이야기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적용을 해왔고 그에 따른 청중들의 변화를 나열하려고 한다.

연구의 의의

본 논문은 교회, 가정,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의 필요성과 성경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첫째,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경 통독의 필요성과 통(通) 이야기 설교의 필요성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받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이 가까워지는 것은 필수이다.

둘째, 성경 통독을 통해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교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구절 및 본문을 읽길 원한다. 그러다 보니 성경 전체를 읽기보다는 성경을 난도질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읽고 있다. 이러한 편향적인 모습은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의 방해하고 있으며 교회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셋째, 목회자들이 설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이다. 통(通) 이야기 설교 방법을 통해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복음이 주된 이야기가 되어야한다. 더욱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강단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가장 큰 브랜드인 성경의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소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교회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야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오카한자파크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 통독과 통(通) 이야기 설교를 적용하였을 때, 청중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지를 조사, 분석, 평가하는 실제 현장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사실 통(通) 이야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통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매 주일 내러포(Narraphor) 설교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성경통독 모임을 진행하여 접근하려고 한다. 이 연구와 조사를 통해 과연 청중들이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과 1년 뒤에 어떠한 변화가 청중들에게 있는지 결과를 나타내려고 한다.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다. II 장에서는 성경 통독의 개념을 설명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배열해야 하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III 장에서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통(通) 이야기 설교를 듣기 위한 배경적인 기본 베이스를 진행하면서 성경 통독을 통해 왜 통(通) 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우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通) 이야기 설교와 연결하려한다. 통(通) 이야기 설교가 과연 무엇인지, 왜 청중

들이 통(通)을 기반한 성경 통독이 함께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과정이다. 또한, 통(通) 이야기 설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통(通) 이야기 설교를 통해 목회자와 청중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나열하려고 한다. 더욱이 통(通) 이야기 설교의 작성 방법 및 다양한 접근으로 통(通) 이야기 설교의 장점 또한 설명하려고 한다. IV 장에서는 프로젝트 실행과정이다. 나미비아 오카한자파크 교회에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표와 표본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려고 한다. V 장에서는 교인들에게 간증 및 인터뷰를 통해 반응을 보고, 그 과정을 정리하며 장점과 보완할 점들을 나타내려고 한다. VI 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해 내고 교인들의 변화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제 II 장

성경통독의 본질

성경통독의 요소

통(通)은 전체를 꿰뚫어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통(通)독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전체를 꿰뚫어 보며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한다. 즉 ‘통(通) 방법으로 책을 읽는다’라는 의미이다. 책을 통으로 읽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두루 꿰뚫어 이해한다는 것이다. 통독은 일단 책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숨에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짧은 시간에 책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 책의 내용에 대해 직관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방법이다.¹

따라서 성경 전체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 성경통독 방식의 읽기 방법이다. 성경 전체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성경 전체가 한 권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66권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시 역사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는 것이 통독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읽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할까? 조병호는 이 성경통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¹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9), 61-62.

전체적으로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읽어 온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며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애독하였다. 또한, 해방 후 분단의 아픔을 겪고 남한에 군부 독재 시절이 오래 계속되자, 이때 소위 ‘보수’와 ‘진보’로 나뉜 한국 교회는 성경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복음전파와 개인 구원을 강조하며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중심으로 읽은 반면,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시대의 약자들을 도우려는 강한 열망으로 아모스서와 같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많이 읽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시대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 그 읽기 범위와 이해의 방향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성경의 부분만을 보는 습관으로 굳어져 왔다.²

성경을 부분만 읽으려는 습관이 대부분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다. 즉 본인들이 필요한 성경 부분을 강조하며 그 부분만 읽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장로교와 감리교가 한국에 교회가 들어올 때 서로 다른 방향을 두고 있었다. 장로교는 개인 구원을 강조함으로써 교회 건축에 앞장섰다면, 감리교는 개인 구원을 위해서 병원, 학교를 짓기 시작하였다. 즉 최종적인 구원의 목표는 같으나 두 교단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선택에 맞서 두 교단이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달랐다.

장로교는 구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많이 강조하였다면, 감리교는 사회적 약자 및 새로운 개혁을 위해 예언서들을 많이 강조하였다. 사실 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 인해 지금 두 교단의 교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난다. 한국에는 장로교가 감리교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감리교는 병원이나 학교가 자리를 잡아 사회 및 세상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목적은 같아도 어느 방향을 취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² Ibid., 44.

이러한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처럼 통(通)이라는 것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자가 말하는 통(通)이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며, 부분보다 전체를 강조하며 성경을 한 권 전체를 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말씀을 읽으려 하는 모습이 예배때도 보여지고 있다.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길게 채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씀 본문이 길면 길 수록 청중들이 지루해한다고 설교자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환경을 만든 것은 어쩌면 이전부터 성경을 부분적으로 쪼개서 설교하는 설교자로부터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전의 방식으로 인해, 청중들이 전체를 보기보다는 부분으로 볼 수밖에 색안경을 씌우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며, 청중들에게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 전체가 중요함을 일깨어 주는 인식이 필요하다.

역사 순서대로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17). 이 본문에는 성경의 권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대부분 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역사순서대로 재배열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성경을 재배열한다는 시도는 얼마 되지 않는 접근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재배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성경의 구성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

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성도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고 생각을 하였다. 이전부터 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상당히 강조되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권위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인들의 인식 속에서 성경을 재배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시도이다.

하지만 성경을 지금 있는 모습으로 읽다 보니 교인들이 혼동이 생기고 어렵게 성경을 읽게 되었다. 따라서 조병호는 이러한 기존의 성경 배열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여, 성경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읽을 수 있으며 역사와 흐름을 이해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재배열을 하였다. 따라서 이 재배열을 통해 교인들은 성경의 이야기에 맞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다.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간을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결국, 성경을 읽는 독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성도들은 각 66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개별적으로 찾으려 노력을 한다. 따라서 역사순대로 재배열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금 읽을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의 현대 시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꿰뚫어 보며 읽는 성경통독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통독할 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통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통(通)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성향과 분위기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시대가 계속 흘러감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단서가 된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을 통해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성경을 일독하여도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성경통독을 하기 때문이다. 즉 성경통독을 꾸준히 하되, 이 성경통독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성경통독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성경통독을 많이 하였다고 할지라도, 성경 통독의 횟수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다. 단 한 번의 성경통독 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성경통독의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성경통독의 가장 큰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 당시, 그 장소에서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지금의 시대와 환경에 맞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통독에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어, 구절, 문장, 문단, 나아가 책을 읽지만 결국 성경 66권을 읽어가는 동안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어가야 됩니다. 성경통독은 머리로 하는 공부라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

경은 펼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편지가 된다. …… 우리는 전체를 부지런히 통독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세계경영이 보이고 그분의 마음이 보인다. 하나님의 경륜과 마음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³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경통독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성경통독의 성서적 배경

구약성경의 ‘읽는다’, ‘낭독하다’의 קָרָא (카라)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과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직접 돌에 새겨 주셨다. 그리고 모세는 이 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였다. 즉 성경의 시작은 모세의 낭독에서 시작이 되었다.

광야 시대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였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와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수 8:34-35).

³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26.

또한 모세가 죽기 전에도 여호수아에게 율법 낭독을 유언으로 부탁하였다. 그리고 이 낭독이 전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낭독은 전통이 되었으며, 이 낭독은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느헤미야에서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 백성들은 수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 책을 읽어준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느헤미야 8:5-9).

이처럼 구약에서는 낭독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낭독을 듣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모세의 율법 낭독은 구약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의식으로 작용했으며 이 낭독은 후대에도 전해졌다. 이러한 모세의 낭독의 시작이 성경통독의 시초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떠할까?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내용의 해석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당시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암기하고 있었으며, 필요시 때마다 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지혜가 총명하다고 생각하였다. (눅 2:46-47).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는 복음서 말씀 가운데 10분의 1 이상이 구약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네 복음서에 예수의 말씀을 다룬 1800개의 구절 가운데 180구절이 구약을 직접 인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것이다.⁴

이처럼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구약을 인용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⁴ H. L. *Wilmington, Wilmington's Guide to the Bible*,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484.

것을 암기하고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낭독과 통독을 통해 이미 구약성서 전체를 암송하였고 많은 시간 구약을 통독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볼 때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함을 알 수 있다(행2:14-36). 그리고 스테반의 설교 또한 대부분 내용이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행2:2-50). 즉 신약의 여러 제자와 사도바울조차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많은 낭독과 암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낭독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전 세대부터 낭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많은 통독과 암기, 그리고 낭독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이 내려온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세대부터 성경통독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즉 통독을 통해서 자손에서 자손으로 성경이 내려왔다.

성경 듣기

한국 기독교가 이제까지 강조하였던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것 등은 초기 한국 기독교부터 강조하였다. 본 연구자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성경은 원래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며 사람들이 대부분 들었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였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기보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01번 등장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읽기보다는 듣고 자랐기 때문이다. 즉 듣는 것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하며, 먼저 듣기를 통해 성경과 가까워져야 한다.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즉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 모세의 율법을 들었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목소리와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읽는 것 보다 듣는 것에 더 익숙하다. 2021년 현재 영상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미디어 시대에, 사람들은 글을 읽는 것 보다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원초적인 정보 습득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성경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듣는 것이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자는 성경을 듣는 것에 3가지의 장점이 있음을 말한다.

첫 번째, 듣는 것이 읽는 것보다 성경통독이 빠르다.

대부분의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 고 말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점점 더 바빠지고, 여유보다는 바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생활 방식이 되었으며 더욱이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 성경을 읽는 것이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방법이 바로 성경을 듣는 것이다. 요즘은 다양한 앱을 통해 성경 듣기가 가능하다. 더욱이 앱을 통해 성경 듣기의 속도도 자신

이 원하는 듣기 속도로 조절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이 ‘성경 듣는 앱’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빠르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빠르게 들어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납니다.” 본 연구자는 이것이 듣는 것과 읽는 것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

즉 눈은 빠르게 읽음으로 인해 피로감이 쉽게 생긴다. 또한 장시간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듣는 것이 조금 더 성경을 알아가는데 피로감도 적고 집중하기도 쉽다. 따라서 성경을 읽기의 부분만 강조하기보다는 성경을 듣는 것 또한 이 시대에 강조되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한국 교회에서 새벽예배 때 성경통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읽는 것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읽는 것이 아닌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즉 많은 교회에서도 읽는 것 보다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듣는 것이 읽는 것보다 더욱더 효과적인 모습을 보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럼 말씀을 듣는 것에 신학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 조병호는 통(通) 성경에서 5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셋째, 성경은 1년 10번 들을 책이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담긴 책이다.

다섯째, 성경은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⁵

⁵ 조병호,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34.

여기서 조병호는 “성경은 소리 내서 읽는 책이다!” 라고 말을 한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읽으면서 성경을 귀로 들으면 좋겠지만, 조병호는 “읽지 않아도 성경을 듣는 것으로 벌써 성경을 알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들었던 옛날이야기들의 기억이 얼마나 오래 기억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조병호는 통(通) 성경학교를 시작할 시기를 말할 때 ‘5세에 시작해서 20세까지’ 를 말한다.⁶

이 5세부터 성경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듣게 함으로써 아이들도 성경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병호는 통(通) 성경통독 방법을 통해서 1년에 10번도 들을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즉 성경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1년에 10번 이상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욱이 조병호는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현대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역사 순 이야기(Story)로 들으라’

두 번째는 ‘그룹을 만들어 함께 들으라’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매일 1시간씩 들으라’

네 번째는 ‘속도, 볼륨을 각자에게 맞게 선택해서 들으라’

다섯 번째는 ‘산책 등 활동하면서 들으라’

이러한 5가지의 방법은 현대 시대 사람들에게 맞춰진 ‘성경을 들으려는 방법’ 이다. 즉 이 5가지의 방법에 가장 큰 장점은 ‘성경을 들으라!’ 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역사순으로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 듣기를 교인들이 장기적으로 진행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룹을 통해서 하나의 스마트폰으

⁶ Ibid., 14.

로도 다 같이 들을 수 있다. 이 그룹을 통해 서로간의 동기 부여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다. 더욱이 지금 전 세계의 2/3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자가 사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도 스마트폰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즉 전 세계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어디서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읽기의 방법을 넘어 듣기를 시작하면 오히려 성경에 더 가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 듣기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시점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다. 본 연구자가 듣고 있는 성경 앱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을 통해 성경을 매일 듣고 있다. 이 앱의 장점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성경을 극적으로 읽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목소리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성경을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을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감정과 인물의 생생한 표현으로 성경을 더욱 더 깊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아이들까지도 이 목소리를 통해 성경이 단순히 딱딱한 책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인식되면서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듣기는 현대 시대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모두 다 바쁘다!’ 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도 성경 듣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성경통독이라는 말은 성경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성경을 보며, 입으로 성경을 맛보고, 그 당시 성경의 이야기 향기를 코로 맡으며, 성경을 삶으로 느끼는 것이 성경통독이다. 따라서 한 감각으로 성경을 마주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이 듣기를 통해 꾸준히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르신들도 듣기를 통해 성경을 꾸준히 가

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연령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성경 듣기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III 장

통(通) 이야기 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

통(通, Tong)의 개념 정의

통은 “서로 통한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다. 조병호는 통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이어서 그러한 다툼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이다.”⁷ 즉 조병호가 말하는 통은 ‘통하다’ 라는 개념을 넘어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보며,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통(通)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조병호는 통을 2가지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동양적인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적인 사고이다. 성경은 서양적인 사고 안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많은 부분이 서양적인 사고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통으로 본다는 것은 동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사고를 통합하여 이 2가지의 요소들을 한꺼번에 본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통달(通達), 관통(貫通)하도록

⁷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44.

보는 것이다. 막힘 없이 훤히 알도록 보는 것, 본질을 파악해서 정통하게 아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는 것, 혹은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섭렵해서 한번에 쥐어 잡는 것이다. 더 나아가 통(通)이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도 쓸 수 있다. 통(通)으로 본다는 것이 대상을 꿰뚫어보는 것을 의미한다면, 통(通)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대상을 꿰뚫어 생각하는 것, 즉 대상을 꿰뚫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따라서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연결점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꿰뚫어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은 서양적인 시각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서양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면 동양의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반대로 동양적인 시각에서만 성경을 본다면 서양적인 시각의 성경적인 부분도 놓치게 될 것이다. 즉 조병호가 원하는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동양적인 시각과 서양적인 시각이 조화가 되어 성경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양적인 시각에서는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식사할 때, 큰 냄비에 나누어서 먹는 문화가 바로 동양적인 문화이다. 따라서 공동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면이 동양에서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서양적인 시각에서는 개인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양에서는 식사를 할 때 개인 그릇에 개별 식사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시각이 함께 어울려야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다.

통(通)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 두 개의 모습의 조화를 이루며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이 아닌 시간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 이전에 성경이 쓰였다고 해서 성경을 그저 이전의 문화, 역사, 장소로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시대에 맞게 읽는 사람의 배경, 역사, 환경에 따라 성경을 읽는 것 또한

⁸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63.

포함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옛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 지금 현대의 삶에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通)으로 보는 이 방법을 통해 성경의 사고방식, 언어, 환경, 역사 등을 포괄하여 전체적으로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것이 통(通)으로 보는 것의 핵심인 것이다.

통(通, Tong) 성경 읽기란?

통(通) 성경 읽기의 가장 큰 원리는 성경을 하나의 전체적인 책으로 보는 것이다. 즉 성경 일부분만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그러한 편향적인 인식으로 인해 성경의 다른 부분이 소홀히 되면서 성경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 하시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통(通) 성경 읽기의 핵심이다.

따라서 조병호는 가장 큰 전제를 두고 통(通) 성경 읽기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라는 대전제를 두고 있다. 마치 한 나라의 역사와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모든 역사 부분을 이해하고 읽어야만 알 수 있듯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66권의 책을 모두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성경 전체를 보기보다는 성경을 부분으로 볼 때가 더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암송 대회이다. 성경 암송대회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 스스로 본인이 외우기 쉬운 구

절, 위로되는 구절, 힘이 되는 구절들만 찾아서 암송하게 된다. 즉 성경을 난도질하게 되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도 어렸을 때 이러한 방식을 경험하였기에 그 당시 연구자가 바라보는 성경의 이미지는 이러하였다. “구약은 어렵고, 신약을 쉽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 연구자가 들었던 대부분의 설교는 신약성서가 대부분이었다. 목회자들도 설교하기 쉬운 창세기나 신약성서만 설교의 본문으로 채택하였고 청중들도 많이 들었던 성경 부분을 설교로 듣기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 읽기는 자칫 하나님의 본 모습을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며 생각하기가 쉽다. 또한 설교자가 구약의 어려운 역사 및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피하기 때문에 청중들 입장에서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만 결국 듣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성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뿐더러 성경을 전체의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역할이 된다.

따라서 통(通) 성경 읽기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부분이 아닌 전체를 통해 성경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통(通) 성경 읽기의 핵심이 될 것이다.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하며, 통(通)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성경을 부분으로 보는 방식은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며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애독하였다. 또한, 해방 후 분단의 아픔을 겪고 남한에 군부 독재 시절이 오래 계속되자, 이때 소위 ‘보수’와 ‘진보’로 나뉜 한국 교회는 성경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복음전파와 개인 구원을 강조하며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중심으로 읽은 반면,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시대의 약자들을 도우려는 강한 열망으로 아모스서와 같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많이 읽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시대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 그 읽기 범위와 이해의 방향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성경의 부분만을 보는 습관으로 굳어져 왔다.⁹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사실로 인해 부분만을 보는 습관이 나타남으로써 성경의 편향적인 읽기가 지금까지도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성경 전체를 보기 위해 노력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이다.

통(通, Tong) 성경 묵상

통(通)으로 성경을 보는 것 중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성경 묵상이다. 묵상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 하는 것이다. 현대 시대에 성도님들은 이것을 큐티(Quiet time)라고 말하며 묵상하는 것을 ‘큐티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성경에서 ‘묵상’이란 표현은 구약시대부터 쓰여오던 단어이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창 24:63).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1:8).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욥 15:4).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읽기, 듣기, 묵상이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묵상지, 즉 큐티책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루, 하루 성경 본문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적인 성경 구절

⁹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8), 44.

의 묵상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묵상지에 가장 큰 문제는 독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그 본문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강제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묵상을 안하는 것 보다 이러한 묵상이 삶에 이로움은 주겠지만, 이러한 방법의 성경 묵상은 스토리로 기록한 성경 저자에게 있어서 스토리를 분할하여 독자에게 준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러다 보면 저자가 원하는 목적으로 청중들이 이해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통(通) 성경 묵상은 매일 구절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읽고, 들으면서 저자의 스토리 전체를 한번에 묵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성경통독원의 원장인 조병호가 발행하는 통(通)독 큐티 ‘마음과 생각’은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에 맞추어 성경 내용의 ‘숲’과 그 울창한 숲 속의 ‘나무’들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세계 최초 유일의 성경통독 방식 묵상지이다.¹⁰

‘마음의 생각’이라는 묵상지는 일 년에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것을 베이스를 두고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읽도록 구성한 교재이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하루에 읽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병호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

하루에 1장씩 말씀을 통독합니다. 본문의 ‘숲’, 즉 전체 흐름을 먼저 살피겠다는 마음으로 한 번 읽고, 더 깊은 묵상을 위해 한두 번 정도 더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때 거기서’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당대 사람

¹⁰ 조병호, *마음과 생각 11/12* (서울: 통독원, 2017), 7.

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봅시다. 그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¹¹

즉 이 목상지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숲’으로 보고 숲을 먼저 살펴 본 다음 ‘나무’를 알게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목상지는 ‘나무’를 먼저 보게 한 다음 ‘숲’을 보라고 한다. 하지만 ‘나무’를 보고 ‘숲’을 보기란, 연구하는 나로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또한 독자가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의 변화로 인해, 독자는 성경을 이해하기 쉽고 성경의 상황을 지금 현대의 상황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이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다. 하나님은 큰 숲을 계획하시고 나무를 심으셨다. 나무를 심었더니 숲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세계를 계획 하시고 거기에 맞게 해, 달, 별 들을 만드셨고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큰 숲’을 먼저 계획하셨고 그 숲을 통해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마찬가지로 독자는 성경의 숲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나무만 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숲을 보시고 있는지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정확한 목상이 될 것이며, 목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

¹¹ Ibid., 6

통(通, Tong) 이야기 설교(Narraphor Preaching)

레너드 스윗은 “오늘의 문화는 더 이상 단어가 아닌 이미지, 은유, 상징,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다.”¹² 레너드 스윗은 ‘내러티브(narrative)’와 ‘은유(metaphor)’의 합성어인 ‘내러포(narraphor)’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즉 “이야기와 은유를 통한 이야기 설교가 이 시대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이다. 더욱이 김영래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

성경은 이야기와 은유로 만들어졌고, 이야기와 은유로 전달되었으며, 이야기와 은유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는 내러포이다. 따라서 성경 교수의 방법은 이야기와 은유를 이야기와 은유 자체로 읽고 듣는 내러포적 방법이 되어야 하며 단어와 개념을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은유 그리고 이야기를 주석해야 한다.¹³

즉 김영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개념을 주석하는 것에서 설교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성경을 단순히 해석하고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처럼 성경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유행하였던 단어가 있었다. 그 단어는 바로 ‘힐링(Healing)’이라는 단어이다. 힐링이라는 단어가 시작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함으로써

¹² Leonard Sweet,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156.

¹³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신학과 세계* 제84호 (2015), 527-528.

내 안의 있는 심리적인 문제나 감정 등에 치유가 일어났다. 더욱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치유와 나눔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힐링’이라는 단어의 시작은 어쩌면 자신의 감추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냄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도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에 ‘V-log’ 등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 그리고 글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야기 자체만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셨고 그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졌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 바로 이야기 설교였다. 탕자의 비유 등 다양한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 따라서 내러포(narraphor)는 레너드 스윗의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이지만 이미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방법이다. 이 방법을 기초삼아, 조병호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

우리 몸의 마디마디들이 우리를 견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유연하게도 하듯이 성경의 7개의 트랙(모세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400년, 4복음서, 사도행전30년, 공동서신 9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견게 하고 뛰게 하며 생동감 넘치게 살아 숨 쉬게 할 성경 줄기 40개를 잡으라.¹⁴

이 줄기를 통해 다양한 가지가 드러나는데, 이 줄기와 가지를 통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병호는 7가지의 이야기 트

¹⁴ 조병호, *성경줄기* (서울: 통독원, 2015), 5.

랙과 40개의 줄거리를 통해 정리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통(通) 성경 7 Track 40줄기

7Track		40줄기
Track 1 모세오경	1	원역사 - 모든 것의 시작(창 1-11장)
	2	족장사 - 아브라함, 이삭, 야곱(창 12-36장)
	3	입(入)애굽과 민족의 발아 - 지도자 요셉(창 37-50장)
	4	출(出)애굽과 제국 - 지도자모세(출 1-18장)
	5	세계 선교의 꿈, 거룩한 제사장 나라 - 제사장 나라(출 19-40)
	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 제사장나라 교과서(레)
	7	만나 세대의 성장 - 제사장 나라 학교(민)
	8	만나 학교 졸업 설교 - 제사장 나라학교 졸업(신)
Track 2 왕정 500 년	9	약속의 땅 입성 - 졸업생 성공 사례(수)
	10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 졸업생 자녀 교육 실패 사례(삿)
	11	교육의 성공사례 - 졸업생 자녀 교육 성공 사례(룻)
	12	미스바 세대의 탄생 - 사무엘의 설득(삼상 1-7장)
	13	왕정의 시작 - 최초의 왕 사울(삼상 8-31)
	14	하나님의 종 다윗 - 다윗(삼하, 왕상 1-2장)
	15	솔로몬과 시가서 - 솔로몬(왕상 3-11장, 잠, 아, 전, 읍, 시)
	16	남북왕국의 분열 - 분단 200년 (왕상 12-22장, 왕하 1-14장, 암, 호, 은)
Track 3 페르시아 7권	17	북이스라엘의 멸망 - 사마리아인 시작 (왕하 15-20장, 사, 미)
	18	남유다의 쇠락 -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하 21-23장, 습, 합, 나, 율)
	19	잠깐의 징계 - 예레미야의 성득 (왕하 24-25장, 램, 애, 읍, 대상, 대하)
	20	포로민 설득 - 에스겔(겔)
Track 4	21	제국변경의 밑그림 - 다니엘(단)

신구약중 간사	22	성전재건 - 스룹바벨 총독(스, 학, 숙, 예)
Track 5 4 복음서	23	성벽재건 - 느헤미야 총독(느)
	24	고백과 침묵 - 1,500년 사랑 고백(말)
	25	헬라제국과 중간사 - 수전절 시작
	26	로마제국과 중간사 - 분봉 왕 시작
	27	예수님의 탄생 - 기쁨을 위한 탄생(마)
	28	공생애 3년 - 한 영혼 사랑(막)
	29	마지막 일주일 - 용서를 향한 열정(눅)
	30	십자가의 승리 -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요)
Track 6 사도행전 30년	31	열리는 제자시대 - 그리스도인의 시작(행 1-12장)
	32	바울의 1차 전도여행 -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행 13-15:35)
	33	바울의 2차 전도여행 -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행 15:36-18:22, 살전, 살후, 갈)
	34	바울의 3차 전도여행 -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 (행 18:23-19장, 고전, 고후)
	35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행 20-26장, 롬)
	36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 바울의 편지들(행 27-28장, 엡, 빌)
Trackn7 공동서신 9권	37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 바울의 편지들(골, 몬)
	38	믿음의 아들에게 남겨진 편지 - 바울의 편지들 (딤펴, 딤후)
	3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 선한싸움 / No 악한싸움 (히, 약, 벧전, 벧후, 유)
	40	최후 승리의 노래 - 최후 승리확신 / No 의심 (요일, 요이, 요삼, 계)

따라서 이러한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였을 때 성경에 맥을 찾을 수 있으며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읽을 수가 있다. 더욱이 현재 성경은 장르별로 나누어져

있다.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예언서 1권으로 성경을 나누어져 있다.

기존의 성경 배열은 성경의 진정한 뜻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의 맥을 찾기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병호는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병호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총 10권으로 쓰여진 대하소설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데 오늘은 1권, 내일은 제6권, 모레는 제3권, 그 다음 날은 제9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왔다갔다 하면서 읽는다면, 다 읽은 후에도 그 스토리와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꼭 그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나마 1권씩 다 읽지도 않고, 그 안에서 좋아하는 구절만 몇 구절 선택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넓고 깊은 말씀의 바다에서 큰 호흡으로 마음껏 수영할 생각은 안 하고, 얇은 개울물가에 앉아서 고작 발만 담그고 침병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¹⁵

이처럼 기존의 성경 배열로 읽는 순간 독자들은 성경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더 어려울 것이다. 즉 성경의 배열 대로 지금처럼 일독한다면, 결국 자신의 만족감으로 일독을 하게 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성경을 이야기 위주로 기억하고 있다. 즉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은 떠오르는 사건과 이야기들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쉽게 기억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기억하기 쉽지 않으며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시 재배열하고 역사 순서로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읽는 청중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발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¹⁵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15.

조병호는 성경의 66권을 역사순으로 다시금 재배열을 하였다. 구약을 총 10마당의 기준으로 성경을 다시 배열했으며 그 10마당 안에 24개의 과로 재배열을 하였다. 또한, 중간사를 1마당 2개의 과로 신약 전체를 9마당 14과로 구성하여 총 20마당 40과로 정리하였다. 그 표는 다음과 같다.

<표2> 구약성경의 역사 순서 배열

구약 통독 순서		
1마당: 하나님의 마음 원역사의 족장시대	1과 원역사	창세기 1~11장
	2과 족장사	창세기 12~36장
	3과 입애굽과 민족	창세기 37~50장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모세와 출애굽시대 ①	4과 출애굽과 제국	출애굽기 1~ 18장
	5과 세계 선교의 꿈	출애굽기 19~40장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레위기
3마당: 만나세대 모세와 출애굽시대 ②	7과 만나세대	민수기
	8과 만나학교 졸업	신명기
4마당: 신앙 계승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시대	9과 약속의 땅 입성	여호수아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사사기
	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룻기
5마당: 천년 모범 왕정시대① 통일왕국시대1	12과 미스바 세대	사무엘상 1~7장
	13과 왕정의 시작	사무엘상 8~31장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사무엘하, 열왕기상 1~2장
6마당: 마음과 지혜 왕정시대② 통일왕국시대2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 3~11장, 잠언, 아가서, 전도서, 욥기, 시편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왕정시대③ 분열왕국시대	16과 남북분열 왕조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14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17과 북이스라엘 멸망	열왕기하15~20장, 이사야, 미가
8마당: 절망 앞에선 희망 왕정시대④ 남유다 퇴락기	18과 남유다 멸망	열왕기하 21~23장
	19과 잠깐의 징계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바벨론 포로시대	20과 포로민 설득	에스겔
	21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
10마당: 재건 공동체 페르시아시대	22과 성전 재건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23과 성벽 재건	느헤미야
	24과 고백과 침묵	말라기

신약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기 위해서는 4개의 복음서를 어떻게 시대순으로 읽을 건인지 고민하여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어떻게 묶을지가 관건이다. 신약성경의 총 27권의 배열을 다음과 같다.

<표3> 신약성경의 역사 순서 배열

신약 성경통독 순서		
11마당: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25과 헬라제국과 중간사	
	26과 로마제국과 중간사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예수님의 사역	27과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3마당: 한 영혼 사랑 예수님의 사역	28과 공생애 3년	마가복음

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예수님의 사역	29과 마지막 일주일	누가복음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예수님의 사역	30과 십자가 승리-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6마당: 열리는 제자 시대 교회의 시작과 열두 사도들의 사역	31과 열리는 제자시대	사도행전 1~12장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 사도바울의 사역과 서신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15:35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5:36~18:22 데살로니가전 · 후서 갈라디아서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23~19장, 고린도전 · 후서
18마당: 준비된 먼류관 남겨진 부탁 / 사도바울의 사역과 서신	35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사도행전 20~26 장, 로마서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사도행전 2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37과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 지 공동서신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 후서, 유다서
20마당: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	40과 최후 승리의 노래	요한일 · 이 · 삼서, 요한계시록

조병호는 이 표와 같이 재배열을 하였다. 즉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통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배열을 하

게 된다면 이야기를 만들기도 수월하며,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재배열 하는 것이 성경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 그것이 바로 통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며 성경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통(通) 이야기 설교에 총 3가지의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통(通) 이야기 설교는 성경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음에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 설교자의 설교 방법은 본문을 선택하여 그 본문에서 주제 내용 3가지를 세워 설교를 풀어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제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회사는 자신의 브랜드를 확실히 나타내길 원한다. 나이키에서 대표적인건 운동화이며 맥도날드에서 대표적인 음식은 햄버거이며, KFC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치킨이다. 교회에서 가장 드러내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설교자들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성경 이야기에서 뽑은 3가지의 주제로 청중들에게 다른 이야기하기 바쁘다. 그러다 보니,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성도님은 그날 예배 때 무슨 본문을 읽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 4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중요한 설교 본문을 대부분 기억도 하지 못하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다. 본 연구자는 이 문제가 바로 한국 기독교를 흔드는 가장 큰 요소라 생각을 한다.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가 메인 음식 되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보조 음식을 팔려고 하며, 다른 것에 오히려 집중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배고픈

성도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성도들은 지금 성경 이야기를 갈급해 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 이곳 저곳 교회를 옮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현재 이야기 설교를 가장 주 되게 설교하는 목회자가 바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라고 본다. 그 이유는 현재 코로나 시대에 2만 명의 사람들이 김학중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꿈의 교회 관계자가 말하길,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유튜브에 찾아와서 김학중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라고 말한다. 김학중 목사는 설교 시간 40분 중 30분 동안 성경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 것을 설명하기보다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오직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누구 하나 지루해하지 않고, 누구 하나 김학중 목사를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30분 동안 얼마나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김학중 목사에게 있어서 과제이고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즉 다른 설교자의 설교와 전혀 다른 설교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통(通) 이야기 설교에서 가장 큰 주된 메뉴는 바로 성경 이야기이다.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현대 시대에 어떻게 연결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대 시대의 설교자가 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이 통(通) 이야기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환경을 소개해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통(通) 이야기의 설교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궁금해한다. 어떻게 해서 그 많

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먼저 통(通) 이야기 설교의 대가가 되어야 하며, 성경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통(通) 이야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환경, 역사,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가 이용하고 있는 ‘리브 더 스토리’ 사이트에서 김영래는 이야기 설교를 이렇게 적용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유월절을 건너뛴다는 (Passover)의 뜻하고 있다.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 집집마다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 우슬초로 문 위와 좌우에 피를 발랐다. 하나님께서는 왜 문 위와 좌우 양편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 문에 바른 핏자국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다. 그 핏자국은 히브리어의 헤트(π)의 모습을 하고 있다. 헤트는 새로운 생명과 부활, 시작을 의미한다.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의미이다.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과 시작으로 이끌어 주신 문이다. 즉 첫 유월절 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청사진을 문에 적어 주셨던 것이다.¹⁶

이러한 역사와 배경을 알고 이 이야기를 바라보았을 때 전혀 다른 성경의 해석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새로운 알리는 신호를 보여주셨다.’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 즉 당시의 사람들의 환경, 역사, 배경들을 알고 있다면 더욱더 성경 말씀의 내용이 깊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시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 설교는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환경, 역사, 배경 등을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시대의 상황을 듣는 사람에게 최대한 가까이 접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은 이야기를 상기시킬 때마다 계속해서 쉽게 성경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통(通) 이야기 설교는 쉬워 보이지만 쉬운 설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야기 설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성경 본문에 담지 못한 환경과 내용을 공간과 시각적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의 세팅이 필요하다.

이 시대의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책 중의 하나가 바로 ‘해리포터’라는 책이다. 사람들은 해리포터의 책을 읽으면서 다양하게 상상하고 그 상상을 토대로 책을 전개해 나아갔다. 그리고 ‘해리포터’의 영화가 등장하자 그 영화는 전 세계를 강타하는 영화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배경이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상상력을 통해 다양하게 읽었던 독자가 그 상상이 영상으로 시각화되자 더욱더 흥미 있게 받아들이고 재미있어 하였다. 즉 통(通) 이야기 설교는 청중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상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청중들은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고 다양하게 접근하게 된다. 통(通) 이야기 설교의 장점은 바로 이 배경, 역사, 환경을 소개해주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시대를 간접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통(通) 이야기 설교를 통해 당시에 일하

시던 하나님, 당시에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등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세 번째로, 통(通) 이야기 설교는 그 당시 이야기가 아닌 현대의 이야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레너드 스윗는 내러포(narraphor)를 통해 단순히 이야기 설교가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아닌 은유를 넣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은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지금 현대의 이야기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레너드 스윗는 강의 중 “중보 기도를 설교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목회자들이 설명한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보기도를 다른 시각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었다. 레너드 스윗는 중풍 병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중보 기도를 설명하였다. 즉 네 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침대를 내려놓는 모습,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이다. (눅 5:17~25).

즉 이야기를 통해 기도를 설명할 수 있으며 단순히 문자적으로 중보기도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중보 기도를 설명할 수 있다. ‘예수님 발 앞에 내 이웃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듣는 청중들이 쉽게 중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말씀의 이야기는 더욱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은유’와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 당시의 말씀 이야기를 그저 설명하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레너드 스윗는 이 방법을 은유와

이미지라는 것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본 연구자는 통(通) 이야기 설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 약 5년간 이야기 설교만 강대상에서 전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통(通) 이야기 설교가 3대지 설교보다 더 어려움이 크다. 왜냐하면, 이 통(通) 이야기 설교를 40분간 전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더욱이 이 이야기를 통해 현대 시대의 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3대지 설교는 3가지의 주제를 세워 쉽게 예화를 넣고 분량을 채우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通) 이야기 설교는 다르다.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청중이 지루해하지 않으며 그 이야기에 빠져 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설교자의 메시지가 청중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통(通) 이야기의 설교가 쉽지 않은 설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통(通) 이야기의 설교를 통해 한국 교회의 또 다른 설교의 유형을 제시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설교 방법은 바로 이야기의 설교 방법이었으며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설교 대가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주었다.

따라서 이 통(通) 이야기 설교가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설교이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 통(通) 이야기 설교는 이미 예전부터 내려온 설교 방법이자 지금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설교이다.

설교자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각성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한국 교회의 모든 말씀이 살아 숨쉬기를 위해서는 이러한 이야기 설교가 하루빨리 한국 교회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

제 IV 장

회중의 상황 및 통(通)독과 이야기 설교의 실제 운영

나미비아 오카한자파크교회(Okahandja Park Church in Namibia) 회중 상황

오카한자파크교회는 아프리카 나미비아 United Methodist Church의 소속으로 있는 교회이다. 아프리카 나미비아가 1990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독립한 이후에 교회의 부흥 시작되었다. 나미비아 연합 감리교단(Namibia United Methodist Church)은 이 부흥 운동에 동참하여 1995년 나미비아 수도 빈트훅(Windhoek)에 오카한자파크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림1> 오카한자파크 교회 전경



나미비아는 현재 기독교 인구 70%인 기독교 국가이다. 더욱이 인구 250만 명 중 약 70%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는 독일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19세기 중순, 독일의 군대가 뒤늦게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리고 나미비아는 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의 식민지였다. 그 당시 독일에 의해 많은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는데 특히 독일의 루터교와 침례교, 로마 카톨릭등 다양한 교단과 종교가 독일 식민지 때 나미비아에 들어왔다.

그로부터 1990년 남아공으로 독립한 후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 나미비아 오카한자파크교회는 나미비아 감리교단에서 유일하게 수도에 위치해 있는 교회이다. 현재 대부분의 성도는 룬두(Rundu)에서 온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나미비아 감리교단에 시작한 앙골라부터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앙골라에 인접한 도시가 룬두(Rundu)라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룬두(Rundu)는 카방고 지역(Kavango Region)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방고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룬두 감리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한 후,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 빈트훅에 왔고,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오카한자파크교회이다.

그래서 현재 오카한자파크 교회는 두 가지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미비아의 공식 언어는 영어(English)이다. 그 영어와 함께 카방고 언어인 관과리(RuKwangali)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가 설교할 때 영어로 말씀을 전하면 옆에서 현지 목회자가 관과리 언어로 통역을 하고 있다.

현재 약 50명의 장년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아이들은 약 300명의 아이가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 오카한자파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나미비아 카투투라(Katutura)라는 지역에 위치해있다. 나미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빈부격차를 가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적게 버는 사람은 한국 돈 오만원의

별이를 한달 월급으로 벌고 있으며 많이 버는 사람은 약 오백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즉 이렇게 큰 월급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미비아는 확실히 부자 동네와 빈약한 동네가 존재한다.

그런데 카투투라(Katutura) 지역은 빈약한 동네에 속한다. 오카한자파크 교회는 이 카투투라(Katutura) 지역에 있으며 교인의 경제력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 교회의 땅을 얻기 위해 비거주 지역으로 정부에 땅을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준 땅은 쓰레기 터전 앞에 아무도 쓰지 않는 땅을 교회에게 주었다. 아무도 이 쓰레기 터전 앞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하므로, 자연스럽게 터전이 비어 있었고, 지금 그 비워진 곳에 오카한자파크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낮은 편이며 교육을 잘 받지 못한 환경이다. 교인 중 대부분은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중학교까지 대부분 이수를 하였다. 따라서 책을 가까이하기 어려운 교인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처음 2019년 4월에 이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기본적인 성경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자 성도님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성경이 없는 사람들, 살기 위해 온 종일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성경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또한, 오카한자파크 교회에 목회자는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세명의 목사가 있다. 그 중 담임 목회자 임마누엘(Immanuel) 목사는 사실 정기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 목회자이다. 나미비아는 신학교가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잠비아(Zambia)에 있는 신학교에 1년에 1달씩 총 8년을 가야 신학 공부 이수로 인정을 해 주고 있다. 이 시간이 8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나미비아 감리교단에서는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먼저 목사 안수를 하게 되었다. 마치 우리나라 한국

감리교단이 이전에 신학대학교만 나와도 목사로 인정하였듯이, 나미비아는 신학교만 다녀도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 알기보다는 신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더욱이 성경의 내용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 문제로 인해, 교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오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는 교인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현재 오카한자파크 교회의 상황이었으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연구에 앞서 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갈망하는지 알아보았고, 교인들에게 사전 인터뷰를 하였다.

1. If you were going to read the Bible, would you be willing to participate?
2. How long have you read the Bible?
3. Why do you think the Bible is necessary?

본 연구자는 이 질문을 통해 교인 40명에게 이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놀라운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40명의 사람이 동참하기 원한다고 대답을 하였다. 하지만 모두 교인들이 “성경을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 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이 성경을 꼭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성경에 대한 갈급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본 연구자는 충격을 받았다. 본 연구자가 이전에 생각했을 때, 교인들이 성경을 알기 원하기보다는 이전에 행하였던 습관과 전통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 답은 “자신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라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을 토대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인들이 더욱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다 보

니 자연스럽게 본 연구자에게 모든 설교의 기회가 찾아왔다. 심지어 담임 목사 임마누엘도 본 연구자에게 “예배의 모든 설교를 진행해주었으며 한다.” 고 부탁을 하였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 목사도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더욱더 본인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야기 설교를 배우길 원하였다.

특히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 교인은 이미 많은 유튜브를 통해 다른 설교를 들어왔다. 그래서 오히려 임마누엘의 설교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설교로 인식 되어 버렸다. 따라서 현지 교회에 교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부탁을 받아 “오카한자파크 교회에 성경을 알려줘야 한다.” 는 계획을 하였고 그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는 성경통독으로 성경과 가까워지기!

두 번째는 통(通) 이야기 설교로 성경 이야기를 알아가기!

이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카한자파크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였으며 교인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하였고 이 프로젝트를 교인들에게 광고를 통해 알리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약 52번의 이야기 설교와 월요일마다 성경통독을 실행하였다.

오카한자파크 교회의 성경 통(通)독 절차

레너드 스위트 (Leonard Sweet)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은 곧 관계라고 말한다. 관계의 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제대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레너드 스위트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관계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필요성이 있다.¹⁷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성도와의 관계이다. 본 연구자는 이 두 개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매 주 이야기 설교를 진행하였다.

설교 본문을 부분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성경의 이야기 중 한 주에 읽어야 하는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를 발췌하여 이야기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이야기 설교를 하기 위해 이전 설교자들의 설교와 전혀 다른 설교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세웠다.

첫 번째는 예화를 넣지 않고 오직 성경 이야기로 전한다.

두 번째는 어려운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이야기로 쉽게 전한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를 연결해서 삶에 적용한다.

이 세 가지의 원칙으로 통(通) 이야기 설교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의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관찰하고 어떤 변화가 삶에 있었는지를 결과 계획을 세웠다. 다른 프로젝트인 성경통독은 조병호의 성경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교인들에게 매주 한 장씩 종이를 나누어주면서, 매일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고,

¹⁷ 레너드 스위트, *관계의 영성* (서울: IVP, 2014), 6-7.

소제목을 달아 그 본문의 내용의 가이드를 잡아 주었다. 이렇게 성경 통독 종이를 나눠줘야 교인들이 잘 따라오는지를 알 수 있으며, 혹시나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본문은 월요일 성경공부 모임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였다.

교인들에게 나누었던 자료는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1권’에 자료를 인용해서 교인들에게 영문 자료를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부분이 아닌, 통으로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교인들에게 처음에는 어색하였지만, 설교와 강의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읽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래야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교인들이 찾을 수 있으며, 교인들에게 필요한 동기를 심어주는 것이 우선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주 광고 시간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더욱이 성경 읽기 표를 본 연구자는 재배열하여 만들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람들의 습성을 알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대부분의 사람 단점은 굉장히 행동이 느리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생각을 한다. 빈민 국가로 살아온 세월이 많다 보니 급할 필요도 없으며 거짓말도 일상처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전혀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또한 이러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한 달 동안 무리해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무리 1년 방법과 계획을 잘 세워도 실행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면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1년 동안 매일 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11개월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 그 대신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 본문을 추가하게 되었다. 오히려 바쁜 일상이 아닌 시간적 여유가 많은 나미비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성경통독을 진행하였다.

<표4>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 통독 매일 성경 읽기표(1-3월)

Jan The heart of God		Feb The Manna Generation		Mar Faith succession	
Date	Range	Date	Range	Date	Range
1	Gen 1 - 2	1	lev 6 - 7	1	Deut 27 - 30
2	Gen 3 - 5	2	lev 8 - 10	2	Deut 31 - 32
3	Gen 6 - 9	3	lev 11 - 13	3	Deut 33 - 34, Ps 90
4	Gen 10 - 11	4	lev 14 - 17	4	Josh 1 - 2
5	Gen 12 - 14	5	lev 18 - 20	5	Josh 3 - 5
6	Gen 15 - 17	6	lev 21 - 22	6	Josh 6 - 8
7	Gen 18 - 21	7	lev 23 - 25	7	Josh 9 - 12
8	Gen 22 - 24	8	lev 26 - 27	8	Josh 13 - 17
9	Gen 25 - 27	9	Num 1 - 2	9	Josh 18 - 19
10	Gen 28 - 30	10	Num 3 - 4	10	Josh 20 - 22
11	Gen 31 - 33	11	Num 5 - 8	11	Josh 23 - 24
12	Gen 34 - 36	12	Num 9 - 12	12	Jud 1 - 2:10
13	Gen 37 - 38	13	Num 13 - 14	13	Jud 2:11 - 5
14	Gen 39 - 41	14	Num 15 - 17	14	Jud 6 - 9
15	Gen 41 - 44	15	Num 18 - 21	15	Jud 10 - 12
16	Gen 45 - 47	16	Num 22 - 25	16	Jud 13 - 16
17	Gen 48 - 50	17	Num 26 - 27	17	Jud 17 - 18
18	Exo 1 - 4	18	Num 28 - 30	18	Jud 20 - 21
19	Exo 5 - 7	19	Num 31 - 32	19	Ruth 1 - 3
20	Exo 8 - 10	20	Num 33 - 36	20	1sam 1 - 3
21	Exo 11 - 13	21	Deut 1 - 4	21	1sam 4 - 7

22	Exo 14 - 15	22	Deut 5 - 6	22	1sam 8 - 10
23	Exo 16 - 18	23	Deut 7 - 9	23	1sam 11 - 14
24	Exo 19 - 20	24	Deut 10 - 11	24	1sam 15 - 16
25	Exo 21 - 23	25	Deut 12 - 14	25	1sam 17 - 18
26	Exo 24 - 27	26	Deut 15 - 17	26	1sam 19, Ps 59
27	Exo 28 - 31	27	Deut 18 - 21	27	1sam 20 - 21 , Ps 34
28	Exo 32 - 34	28	Deut 22 - 26	28	1sam 22, Ps 52
29	Exo 35 - 38			29	1sam 23 - 24, Ps 57
30	Exo 39 - 40			30	1sam 25 - 26, Ps 54
31	lev 1 - 5			31	1sam 27 - 31

<표5>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 통독 매일 성경 읽기표(4-6월)

April Millennium model		May Mind and wisdom		June Line of love	
Date	Range	Date	Range	Date	Range
1	2sam 1 - 2	1	Job 11 - 14	1	2 ki 6 - 8
2	2sam 3 - 6	2	Job 15 - 17	2	2 ki 9 - 10
3	2sam 7 - 10	3	Job 18 - 21	3	2 ki 11 - 14
4	2sam 11 - 12, Ps 51	4	Job 22 - 24	4	Amos 1 - 5
5	2sam 13 - 15, Ps 3	5	Job 25 - 31	5	Amos 6 - 9
6	2sam 16 - 17	6	Job 32 - 37	6	Hos 1 - 4
7	2sam 19 - 20	7	Job 38 - 41	7	Hos 5 - 9
8	2sam 21 - 22	8	Ps 1 - 2, 4 - 9	8	Hos 10 - 14
9	2sam 23 - 24	9	Ps 10 - 18	9	Jonah 1 - 4

10	1Ki 1 - 2	10	Ps 19 - 27	10	2 ki 15 - 16
11	1Ki 3 - 4	11	Ps 28 - 33	11	2 ki 17 - 18:12
12	1Ki 5 - 7	12	Ps 34 - 41	12	Jud 1 - 3
13	1Ki 8	13	Ps 42 - 50, 53	13	Jud 4 - 7
14	1Ki 9 - 10	14	Ps 55 - 56, 58, 60 - 66	14	Jud 8 - 12
15	Prov 1 - 5	15	Ps 67 - 72	15	Jud 13 - 17
16	Prov 6 - 9	16	Ps 73 - 78	16	Jud 18 - 20
17	Prov 10 - 15	17	Ps 79 - 85	17	Jud 21 - 24
18	Prov 16 - 20	18	Ps 86 - 89	18	Jud 25 - 29
19	Prov 21 - 24	19	Ps 90 - 102	19	Jud 30 - 35
20	Prov 25 - 29	20	Ps 103 - 106	20	2ki 18:13 - 37, Jud 36
21	Prov 30 - 31	21	Ps 107 - 118	21	2ki 19, Jud 37
22	Song 1 - 4	22	Ps 119	22	2ki 20, Jud 38 - 39
23	Song 5 - 8	23	Ps 120 - 134	23	Jud 40 - 42
24	1 KI 11	24	Ps 135 - 142	24	Jud 43 - 45
25	Ecc 1 - 3	25	Ps 143 - 150	25	Jud 46 - 50
26	Ecc 4 - 7	26	1 ki 12 - 14	26	Jud 51 - 55
27	Ecc 8 - 12	27	1 ki 15 - 17	27	Jud 56 - 59
28	Job 1 - 3	28	1 ki 18 - 19	28	Jud 60 - 63
29	Job 4 - 7	29	1 ki 20 - 22	29	Jud 64 - 66
30	Job 8 - 10	30	2 ki 1 - 2	30	Mic 1 - 3
		31	2 ki 3 - 5		

<표6>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 통독 매일 성경 읽기표(7-9월)

July Line of mission		Aug Hope in the face of despair		Sept A stepping stone to hope	
Date	Range	Date	Range	Date	Range
1	Mic 4 - 7	1	1 Chr 17 - 20	1	Dan 7 - 9
2	2 ki 21- 23	2	1 Chr 21 - 22	2	Dan 10 - 12
3	Zep 1 - 3	3	1 Chr 23 - 26	3	Ezr 1 - 4
4	Hab 1 - 3	4	1 Chr 27 - 29	4	Hag 1 - 2
5	Nah 1 - 3	5	2 Chr 1 - 4	5	Zec 1 - 6
6	Joel 1- 3	6	2 Chr 5 - 7	6	Zec 7 - 10
7	2 ki 24, Jer 1 - 3	7	2 Chr 8 - 9	7	Zec 11 - 14
8	Jer 4 - 6	8	2 Chr 10 - 13	8	Ezr 5 - 6
9	Jer 7 - 9	9	2 Chr 14 - 17	9	Est 1 - 5
10	Jer 10 - 13	10	2 Chr 18 - 22	10	Est 6 - 10
11	Jer 14 - 16	11	2 Chr 23 - 25	11	Ezr 7 - 10
12	Jer 17 - 20	12	2 Chr 26 - 28	12	Neh 1 - 3
13	Jer 21 - 23	13	2 Chr 29 - 31	13	Neh 4 - 7
14	Jer 24 - 25	14	2 Chr 32 - 33	14	Neh 8 - 10
15	Jer 26 - 28	15	2 Chr 34 - 36	15	Neh 11 - 13
16	Jer 29 - 31	16	Eze 1 - 3	16	Mal 1 - 4
17	Jer 32 - 33	17	Eze 4 - 7	17	Bible conference
18	Jer 34 - 36	18	Eze 8 - 11	18	
19	Jer 37 - 38	19	Eze 12 - 14	19	
20	2 ki 25. Jer 39 - 41	20	Eze 15 - 17	20	

21	Jer 42 - 45	21	Eze 18 - 20	21	
22	Jer 46 - 48	22	Eze 21 - 24	22	
23	Jer 49 - 52	23	Eze 25 - 28	23	Mt 1 - 4
24	Lam 1 - 2	24	Eze 29 - 32	24	Mt 5 - 7
25	Lam 3 - 5	25	Eze 33 - 35	25	Mt 8 - 10
26	Oba 1	26	Eze 36 - 39	26	Mt 11 - 13
27	1 Chr 1 - 3	27	Eze 40 - 43	27	Mt 14 - 16
28	1 Chr 4 - 5	28	Eze 44 - 46	28	Mt 17 - 20
29	1 Chr 6 - 9	29	Eze 47 - 48	29	Mt 21 - 23
30	1 Chr 10 - 12	30	Dan 1 - 4	30	Mt 24 - 25
31	1 Chr 13 - 16	31	Dan 5 - 6		

<표>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 통독 매일 성경 읽기표(10-12월)

Oct One soul love		Nov The expansion of the gospel		Dec Victory song	
Date	Range	Date	Range	Date	Range
1	Mt 26 - 28	1	Acts 13 - 15:35	1	Philem 1
2	Mk 1 - 3	2	Acts 15:36 - 18:22	2	1 Tim 1 - 2
3	Mk 4 - 6	3	1Th 1 - 5	3	1 Tim 3 - 4
4	Mk 7 - 8	4	2Th 1 - 3	4	1 Tim 5 - 6
5	Mk 9 - 10	5	Gal 1 - 3	5	Tit 1 - 3
6	Mk 11 - 13	6	Gal 4 - 6	6	2 Tim 1 - 2
7	Mk 14 - 16	7	Acts 18: 23 - 19	7	2 Tim 3 - 4

8	Lk 1 - 2	8	1 Cor 1 - 4	8	Heb 1 - 2
9	Lk 3 - 4	9	1 Cor 5 - 8	9	Heb 1 - 2
10	Lk 5 - 6	10	1 Cor 9 - 11	10	Heb 3 - 4
11	Lk 7 - 8	11	1 Cor 12 - 14	11	Heb 5 - 6
12	Lk 9 - 10	12	1 Cor 15 - 16	12	Heb 7 - 8
13	Lk 11 - 13	13	2 Cor 1 - 4	13	Heb 9 - 10
14	Lk 14 - 16	14	2 Cor 5 - 9	14	Heb 11 - 13
15	Lk 17 - 18	15	2 Cor 10 - 13	15	Jas 1 - 2
16	Lk 19 - 20	16	Acts 20 : 1- 6	16	Jas 3 - 5
17	Lk 21 - 22	17	Roman 1 - 3	17	1 Pet 1 - 3
18	Lk 23 - 24	18	Roman 4 - 7	18	1 Pet 4 - 5
19	John 1- 3	19	Roman 8 - 11	19	2 Pet 1 - 3
20	John 4- 6	20	Roman 12 - 14	20	Jude 1
21	John 7- 8	21	Roman 15 - 16	21	1 Jn 1 - 3
22	John 9- 11	22	Acts 20 : 7 - 23	22	1 Jn 4 - 5
23	John 12- 13	23	Acts 24 - 26	23	2 Jn 1, 3 Jn 1
24	John 14- 15	24	Acts 27 - 28	24	Rev 1 - 3
25	John 16- 17	25	Eph 1 - 3	25	Rev 4 - 7
26	John 18- 19	26	Eph 4 - 6	26	Rev 8 - 11
27	John 20- 21	27	Phil 1 - 2	27	Rev 12 - 15
28	Acts 1 - 2	28	Phil 3 - 4	28	Rev 16 - 18
29	Acts 3 - 5	29	Col 1 - 2	29	Rev 19 - 22
30	Acts 6 - 9	30	Col 3 - 4	30	Bible conference

31	Acts 10 - 12				
----	--------------	--	--	--	--

성경 통독 실행 방법

성경 통독의 가장 큰 관건은 “얼마나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특히나 한국과 다르게 나미비아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경 읽기가 더욱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었다.

본 연구자는 나미비아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경험적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성경 통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고민하였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성경공부 모임을 할 때 성경 읽는 시간을 가졌고, 이 모임은 월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진행하였다. 그래서 혹시나 못 읽는 분량이 있거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의 중간 포인트를 만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는 것이다. 다행히 나미비아는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은 KJV(King James Version)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KJV 버전으로 성경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성경통독 때 사용한 듣기 앱은 바로 ‘Offline Audio Bible KJV’이다. 이 앱의 장점은 한번 다운을 받으면, 데이터가 없어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매번 월요일 성경 모임 때 핸드폰 핫스팟(Hotspot)을 켜서 새로운 성도,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도 성경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계속해서 이 성경 듣기를 강조하며 매주 월요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듣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게 격려해주었다.

성경 통독 프로그램 시간표

<표8> 성경 통독 프로그램 시간표

시 간	내 용
19: 00 - 19: 10	오카한자파크 교회로 모임
19: 10 - 19: 20	찬양 및 중보기도
19: 20 - 20: 10	성경 말씀 읽기
20: 10 - 20: 15	하나님의 마음알기 및 찬양
20: 15 -	개인 기도 시간

이러한 시간표대로 계획을 세워 오카한자파크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게 되었고, 이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였다. 중요한 것은 오카한자파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 모임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래서 이 모임이 더욱더 풍성한 모임이 되었으며 다수의 인원으로 인해 성경 통독의 분위기를 잡아갔다. 먼저 우리는 저녁 7시에 모이지만 대부분 일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저녁 7시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7시에 모이도록 최대한 권장을 하였고 늦어도 7시 20분까지는 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다. 그 시간 동안 모임에서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자는 이 시간에 중보기도를 많이 하였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성상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왜냐하면, 목사의 축복이 안수받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에서도 교인에게 안수식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본 연구자는 매번 성경 모임을 할 때 중보기도 및 안수를 하였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일찍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어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중에 중보기도 시간을 앞당겨서 진행하다 보니, 많은 환자분

도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많은 아이도 성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은 영적인 분위기도 함께 세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통독이 단순히 성경만 읽는 프로그램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오카한자파크 교회 성도들에게 읽기 보다는 성경 듣기를 진행하였다.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 반응은 신기해하였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듣는다.” 라는 것은 익숙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많은 사람이 본 연구자에게 질문하였다.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언제 & 어떻게 녹음할 수 있었을까요?” 아프리카에 스마트폰이 보편화 된 건 사실 2-3년이 채 되지가 않다. 대부분 아프리카의 스마트폰은 “한국보다 약 3년정도 오래된 제품이 더 잘 팔리고 있다.” 가령 한국은 2021년 1월 아이폰 12가 등장을 하였다면, 지금의 나미비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핸드폰은 아이폰 8이다. 그만큼 핸드폰의 보급률이 느리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전에 고가였던 스마트폰이 시간이 지나자 저렴하게 아프리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이 시점에 성경 듣기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최고의 타이밍으로 다가왔다.

<사진2> 오카한자파크 성경 통독 프로그램 모임



<그림3> 오카한자파크 성경 통독 프로그램 모임



성경통독을 한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받았다. 특별히 잘 모르는 뜻이나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시간이 끝나면 다 같이 자신의 오늘 말씀에서 느꼈던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시간을 가졌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5).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였고, 각자 깨달은 마음을 서로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하나님 마음 알기 시간을 통해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적용을 통해 성경 통독의 대한 습관화를 하였다.

소그룹 결성

우리 프로그램은 실행하는 과정 중 교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했다.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는 서로가 가족이나 친척으로 연결된 가정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가정마다 소그룹을 지정해 주었고, 그 소그룹의 리더를 세웠다. 그리고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 시간마다 설명하기 시작하였고, 본 연구자는 매번 소그룹 리더들에게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확인을 하였다.

William A. Beckham은 “교회에는 두 날개가 있는데, 한 날개는 대 그룹의 예배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¹⁸ 또한, William A. Beckham은 “인간의 자존감을 세워 주는 세 가지 감정은 소속감과 가치

¹⁸ William A. Beckham, *The Second Reformation; Holistic Small Groups Reshaping the Chur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티치코리아 사역팀 역, 제2의 종교개혁 (서울: NCD, 2002), 32.

감, 그리고 자신감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소속감이다. 교인들의 소속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각 개인이 존중될 수 있는 소그룹에 속할때다.”¹⁹

소그룹이 결국 살아야 가정이 살아날 수 있으며,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 각 가정에 소그룹장을 세웠고, 그 소그룹장에 의해 성경통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매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우리는 소그룹에서 이러한 규칙을 세웠다.

첫 번째, 한 명이 있어도 성경통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성경을 듣기 시작할 때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성경만 읽는다.

세 번째, 성경통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자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규칙을 매번 설명하면서 나미비아 오카한자파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통독을 요청하였고,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알기 시간을 강조하였다. 특히나 조병호의 역사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행진 ‘1년 1독 성경통독’ 1~4권에 수록된 52주 소그룹 모임의 주제와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해 왔다.

<표9> 소그룹 모임 주제 및 주간 통독 범위

Month	Contents	Range
Jan	New beginning (Gen 1: 26 - 31)	Gen 1 - 21
	Family of Faith (Genesis 28:10-22)	Gen 22 - 41
	Will and Vision (Genesis 50:1-21)	Gen 42 - 50, Exo 1 -10
	Miracle Story (Exo 14:21-31)	Exo 11 - 29

¹⁹ 이연길, *말씀 묵회 패러다임* (서울: 콤파스 출판사, 2001), 139-140.

Feb	Sky Jewelry (Exo 28:15-30)	Exo 30 - 40, Lev 1 - 10
	Holy is love (Lev 19:9-18)	Lev 11 - 27
	The Story of Number (Num 1:1-19)	Num 1 - 14
	Ready to enter Canaan (Num 27:12-23)	Num 15 - 32
Mar	Teach your children (Deut 6:1-9)	Num 33 - 36 , Deut 1 - 14
	Enjoy the blessings of God (Deut 28:1-19)	Deut 15 - 34, Ps 90
	Songs of Joshua and Caleb (Josh 14:6-15)	Josh 1 - 22
	The Story of the Dead (Jud 13:1-14)	Josh 23 - 24, Jud 1 - 16
Apr	Desert Oasis (Ruth 4:13-22)	Jud 17 - 21, Ruth 1 - 4 , 1Sam 1 - 12
	David's qualifying round (1Sam 17:41-49)	1Sam 13 - 24, Ps 59, 34, 52, 57
	Why David?(2Sam 5:1-5)	1Sam 25 - 31 , 2Sam 1 - 12, Ps 54, 51
	King David, the model of the millennium (2Sam 23:1-7)	2Sam 13- 24, 1KI 1 -2, Ps 3
	The Story of Solomon (Prov 1:1-9)	1KI 3-10, Prov 1 - 15
May	Wisely (Prov 16:1-9)	Prov 16- 31, Song 1 - 8, 1ki 11
	Remember the Creator (Ecc 12:1-14)	Ecc 1 - 12, Job 1 -14
	Now I see the Lord with my eyes (Job 42:1-9)	Job 15 - 42
	Blessed (Psalm 1)	Ps 1 - 66
Jun	Faith to descendants (Psalm 78:1-8)	Ps 67 - 118
	Under the shadow of faith (1 Ki 12:1-7)	Ps 119 - 150, 1Ki 12- 17
	Miracle of obedience (2 ki 5:1-6)	1Ki 18 - 22, 2Ki 1-14

	The life of loving God (Ho 6:1-6)	Amos 1 -9, Hos 1 - 14, Jonah 1-4, 2Ki 15-16
Jul	God of Immanuel (Isaiah 7:10-14)	2Ki 17 - 18:12, Is 1 - 24
	God Healing (Isaiah 38:1-8)	2Ki 18:13 - 20, Is 25 - 45
	What we want for our home (Micah 6:1-8)	Is 46 -66, Mic
	We joyful by faith (Hab 3:16-19)	2Ki 21- 24, Zep, Hab, Nah, Joel, Jer 1- 6
	Jeremiah's Prayer (Jeremiah 17:12-18)	Jer 7 - 28
Aug	A joy like a watered garden (Jer 31:10-14)	Jer 29 - 48, 2Ki 25
	To my beloved brother (Job 1:10-14)	Jer 49 - 52, Lam, Job, 1 Chr 1-5
	The first family (1 Chronicles 9:10-16)	1 Chr 6-29
	Full of the glory of God (2 Chron. 5:11-14)	2 Chr 1 - 25
Sep	In Ezekiel's vision (Ezekiel 8:1-13)	2 Chr 26-36, Eze 1-11
	Whom to rely on? (Ezekiel 32:1-10)	Eze 12-32
	God is with you (Ezekiel 48:30-35)	Eze 33-48
	Daniel, the man of prayer (Dan 6:1-10)	Dan, Eze 1-4
	Put our hearts together (Es. 4:1-17)	Hag, Zec, Eze 5-6, Est 1-10
Oct	Sharing Joy through the wall rebuilt (Neh 12: 43-47)	Eze 7-10, Neh, Mal
	Our Jesus, who came with great joy (Mat 2:6-10)	Mt 1-23
	Love beyond the rough storm (Mk 5:1-15)	Mt 24-28, Mk 1-13
	With the love of the cross (Mk 15:33-41)	Mk 14-16, Lk 1-13
Nov	Jesus is risen (Lk 24:44-53)	Lk 14-24, Jn 1-6

	Our life rich with Jesus (Jn 21:24-25)	Jn 7-21
	Gospel and witnesses (Acts 13:1-3)	Acts 1-18:22, 1Th
	Only grace, only faith (Galatians 3:1-14)	2Th, Gal, Acts 18:13-19, 1 Cor 1-11
Dec	With only love (1 Cor 13:1-13)	1 Cor 12-16, 2 Cor, Acts 20:1-6, Rom 1-7
	Confession of a called Christian (Acts 26:1-18)	Rom 8-16, Acts 20:7-28, Eph 1-3
	Family of faith, victory in the world (2 Tim. 1:1-9)	Eph 4-6, Phil1, Col, Philem, 1Tim, 2Tim, Tit
	We look to Jesus (Hebrews 12:1-3)	Heb, Jas, 1 Pet, 2Pet, Jude
	Christian victory (Rev 22:10-21)	1Jn, 2Jn, 3Jn, Rev

소그룹 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나누어 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주제에 맞게 설명을 하였다. 처음에는 소그룹장들이 자신의 리더십에 의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나미비아에서는 속회라는 개념 그리고 소그룹이라는 개념이 교회에서 한 번도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주 월요일마다 주제에 맞게 소그룹장들이 모여 성경을 먼저 풀이해주고, 설명을 해 주었다. 특별히 왜 이렇게 내용(Contents)에 이러한 제목을 지었고, 왜 이 구절에서 이 주제를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였고 각 소그룹에 대한 고충을 점검하면서 소그룹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며 진행을 하였다.

가정 성경 읽기

나미비아 성경통독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가정에 아이들까지도 동참할 수 있었다. 나미비아는 한국과 다르게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명령이든

지 들어야 하는 강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 한국도 1950년에서부터 1980년대까지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 또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마치 나미비아에서도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성경을 읽는 순간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성경 읽기를 듣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 너무나도 놀랐으며, 가정에서 일어난 이 성경통독은 자녀들과 부모에게 있어서 큰 효과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Richard Lovelace은 이렇게 표현하였다.

CLS 통(通) 시스템은 가정에서 1주일에 한 번 평일 저녁 시간으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 통(通) 이야기 듣기, 하나님의 마음 나누기, 성경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이다. 마틴 루터는 교회가 변혁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에클레시아(ecclesia) 속에서 에클레시올라(ecclesiolae)를 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교회가 끊임없이 변혁하려면 교회 속의 작은 교회들이 살아 있어야 한다.²⁰

따라서 가정에서 말씀이 살아야 그 말씀을 교회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 성경통독은 단순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이 아닌, 가정까지도 그 습관이 전해 질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가정에서 진행되는 성경통독을 가장 강조했다. 왜냐하면, 이 성경통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경통독이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것보다 한 번이라도 읽는 것이 대단할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통독이 습관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²⁰ Richard Lovelace, *Dynamics of Spiritual Life-An Evangelical Theology of Renewal* (Downers Grove, IL., IVP, 1979), 165. 김덕수, *셀교회 전환과 셀리더 세우기* (서울: NCD, 2002), 28에서 재인용.

그 습관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습관이 되어야 하며, 가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경통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삶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습관을 길러가는 데 또한 목적을 두고 있다.

통(通) 이야기 설교의 절차

본 연구자는 1년간 매 주 강대상에서 이야기 설교만 하였다. 그리고 1년간의 설교를 들은 후 교인들의 반응을 관찰하였고,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조사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래서 이야기 설교의 방법으로 모든 설교를 작성하고 이 설교로 1년 동안 교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다. 밑에 있는 통(通) 이야기 설교는 1년간의 설교 중 하나의 표본이다. 이 표본을 통해서 본 연구자가 어떻게 이야기 설교를 다루었는지 알 수가 있다.

Scripture: Genesis 39:1-6

Today's title is "religious life is a traffic light." Today's sermon is about Joseph, whom you know very well. Joseph, the son of Jacob and the 11th of the 12 brothers, was a son that his father Jacob loved very much. So Joseph's brothers did not like him because they are jealous of him. One day that the sun and the moon and 11 stars would bow to him. It means his 11 brothers and father lay down on him. Then Joseph becomes even more hated by telling his brothers about his dreams, so they sell him to Egyptian slaves. The text that follows is from the chapters 39.

Joseph was taken to Egypt, where a man named potiphal, the chief of the throne of Pharaoh king of Egypt, liked him in the slave market and bought him as a slave. So Joseph is sold to a man named potiphal, like a product in the slave market. And Joseph was always with God. So we can see in the Bible today that Joseph is a slave but is being treated differently.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the bible says he went well, and to be more exact, Joseph was a man who successfully worked what potiphal told him to do. So potiphal believed in Joseph even more. And God was with Joseph in everything he did, potiphal could trust him even more. So the potiphal left his home and all his possessions in Joseph's care. Let's think. Do you think it is possible for a slave Joseph to manage his owner's property? In fact, if God had not been with Joseph, Joseph would have been 17 years old, and it would not have been easy for him to become good slave. Moreover, Everything Potiphal did went well through Joseph.

God was with Joseph, God also influenced Potiphal. So Potiphal liked Joseph more and trusted him. Because God blessed through Joseph. This is when Joseph actually learned to manage. As you work at home, you're in charge of the accounting and you're learning to manage them. In fact, it is later used as another capacity for Joseph when he becomes prime minister. It's a wonderful training of God.

So why would I say Joseph's life is a traffic light?

When I saw this scene, I thought Joseph's life was a green light. The green light is a signal to go forward. A green light is a signal to move. Green light means safe. So even though Joseph was sold as a slave, Joseph was treated as a non-slavery person. And furthermore, Joseph was able to stay safe in the Potiphal' s house because God protected him from walking like a green light.

But do you know what kind of light comes after the green light? I'm sure those of you who drive your car know it. It's a yellow light. What does the yellow light mean? The red light is coming soon, so be careful to slow down and be prepared to stop. They're telling us to be slow because it could be dangerous. Suddenly Joseph changed his life's light to yellow.

Let's read verse 6 together.

So he left in Joseph's care everything he had; with Joseph in charge, he did not concern himself with anything except the food he ate (Genesis 39:6). Now Joseph was well-built and handsome, Joseph was good at his work and honest, but Joseph was also handsome. So the wife of Potiphal started to seduce Joseph. Joseph's life, which was a green light, had a yellow light. Potiphal's wife continues to seduce Joseph secretly. When the wife of Potiphal was about to go to bed with Joseph, he rejected it and ran away. Joseph ran away when his clothes were left behind in the process. Joseph's life was

definitely a yellow light. Joseph tried very hard to be careful and tried not to misbehave so as not to betray his faith in Potiphal. But the wife of Potiphal thought that she got humiliated so she makes a false charge against Joseph.

The wife of Potiphal blames Joseph for having molested her and he said that he wanted her to sleep with, When Joseph heard this, he had to run away. But Joseph had to go jail. It's certainly when Joseph's life begins to be red light. What does the red light mean? It means not to move but wait. Moreover, if you move on a red light, you can get hurt, and it can cause an accident, so stopping it for a while is what red light means. Do you know how long Joseph was in prison through this case? Joseph was imprisoned for two years through this case. How was Joseph's heart? Joseph may have confessed to God that he was very unfair. He worked hard however he went jailed for two years. Joseph would have been prepared for two years in prison. What did he prepare for and how did he feel?

He would have thought like this. He would have known that "God is the only one I trust." Plus, he would have thought that there was no one on his side anymore. So, after two years in prison, Joseph knew who he had to rely on thoroughly, and spent two years getting closer to God. Joseph is well trained and ready to take a leap at any time. Everyone, when the red light is over, a green light comes on. People wait for when the green light will come in. And I get nervous about my feet so that I can start anytime. If the light turns

green, you'll be thinking of pulling your foot off the brake and stepping on the accelerator to move forward.

Joseph was training like that. For as long as two years, Joseph has had a precious time with God and is trained to trust him completely. He put down the injustice. Why did he train for two years, for a long time? Joseph became a great man later. Then Joseph interpreted the dream of the king Paraoh after that and was appointed prime minister in Egypt. He went through course from slave, prisoner and finally became a prime minister. Finally, a green light came into Joseph's life. Even though Joseph was on a green light, he completely relied on God. Instead of relying on something else, you start living for God.

Joseph's story was a traffic light. But in fact, our lives are no different from Joseph's. There are always green lights, yellow lights, and red lights in our lives. So our lives are driven by traffic lights. But sometimes we ignore it and sometimes we move! not waiting for the lights to turn. So I hope that this message today will be yours.

How about when our lives are green light? When I am recognized in society, well-earned, or well-grown children, we sometimes think that we have achieved it on my own rather than thank God. We think it's the result of our own hard work. In other words, when my life is green light, we should always be careful. We don't know when it's going to happen. It's actually more

dangerous when it's green. Because sometimes We miss God, we think our life is good with our strength.

At that moment God is warning you. God has warned the people of Israel always. Serve me well! Don't forget me! Don't serve your idol! So God keeps talking in our lives. "Don't be relieved that you are green light! It's not your power, it's mine. Don't rest assured that you have nothing to worry about! Always remember me the Lord." This was a warning to Israel all the time. You should stop all your work when you have this warning. It's as if you hit a yellow light and you have to automatically step on the brake, and if you press harder to pass the yellow light, you're more likely to have an accident and your life could be in danger. When God's warning is given, when I forget God, when I do not pray to God, it is the yellow light of your life. At that moment, we have to be ready to stop.

What should I stop and do? Find God. When it's a red light, we can afford to look around. When it's a red light, we have time to see my surroundings. When it's a red light, we want to talk to someone. Be sure to be the one who finds God in that red light. If I move forward in a red light, as I thought, I could be in danger. Moreover, at that moment, we must find God. Joseph also had the time to be closest to God when there was a red light in his life. When it's a red light, we can look around. And we can find God more and more.

Sometimes we need patience when it's red light. we do not give up our prayers even we do not get responded. We must keep praying while waiting for them to be answered at the time God desires. I'm sure you have a situation with the red light. All we have to do is finding God and praying to him. And whenever we become red light that we should be ready to go forward by relying on God.

So our lives can be compared to traffic lights. When you drive or cross the street, you will see a traffic light. Please remember that God is always with you when you see the light. When it's green, confess that God will guide me! When it's yellow, think that God will warn me! God is trying to protect me, and when it's a red light, stop and think that God wants to talk to me! Oh, God tells me to rest! When we don't do this, we actually get more confused and look like we're going fast, but we don't really go fast.

I find something interesting when I'm driving a car. I often think it's dangerous to ignore the traffic lights and see cars trying to go fast when it's yellow. I often think How urgent is he? The time takes him to get there is only five to ten minutes earlier than me. Even though we overspeed to go fast, but we can't go really much. I hope your lives keep pace with God. That's the way to go with God.

We must find the Holy Spirit. Because without the Holy Spirit my life is not spiritually sensitive. Sometimes we need to stop, sometimes we need to

slow down, sometimes we need to go fast. The way to know is that the Holy Spirit must be with me. If you confess that your life is a traffic light, if your life must be under God's protection, then you must pray for the Holy Spirit. I don't know if my situation is red, green or yellow unless you're spiritually sensitive. If you want to go on with the Holy Spirit, God will surely let you hear through your environment like Joseph.

Now, this is end of the sermon

Joseph's life is a traffic light, and it's actually the same as ours. There are also red, yellow, and green lights in our lives. I don't have to be frustrated because I'm red; I don't have to be afraid of yellow light; I don't have to be happy about green light. Because these three colors always turn. Each time, you can have a closer time to God. Joseph didn't miss the time to be closer with God. When your life is a red light, the red light will definitely turn to a green light. When it's green, there's a yellow light. When it's yellow, a red light must come. Therefore, we must be with God, and we must be together. I hope you will believe it and confess it. If you forget to be with God, your life will be greatly destroyed. That's why you should always seek the Holy Spirit. Furthermore, if you live close to God and walk with him, you will arrive safely at his destination. I'm going to finish today's sermon by putting it in one sentence. I'll finish reading it all together in one voice. God is always with me like a traffic light.

Prayer

Thank God. God who protects us like a traffic light, like a traffic light in my life, sometimes a green light, sometimes a yellow light, or a red light. Do not let me act as I thought, but help me live with God. Like Joseph's story, God wants to use us the most! Let us be like Joseph, and let us continue to lead our lives with God. We want to go safely to the destination God desires, under the protection of God. May God lead us to respond through the Holy Spirit, and may we always be the saints who seek the Holy Spirit. I leave everything to God, thank you in the name of Jesus and pray. Amen.

<그림4> 오카한자파크 이야기 설교 진행 모습



<그림5> 오카한자파크 이야기 설교 진행 모습



본 연구자는 이 통(通) 이야기 설교를 하면서 총 3가지의 규칙을 주된 지침을 생각하고 설교를 진행하였다. 이 3가지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성경의 이야기만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이 이야기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은 설교자가 스토리텔링의 대가가 되려고 하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하듯이 청중들에게 전달 되어야 하며 청중들이 그 이야기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의 방법으로 통(通) 이야기 설교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주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위에 샘플 설교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주된 본문

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설교자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두고 설교를 진행하며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뽑아낸 3가지의 주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지만 이 통(通) 이야기 설교는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교인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 빠지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꾼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정확하고, 재미있고, 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가 설교자의 가장 큰 관건이기도 하다.

대부분 청중은 요셉에 이야기 중 감정이나 사건들을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형들에게 버림받는 모세는 어떠한 심경이었을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심경이었을까?” 이러한 감정적인 상황과 장면을 대부분 놓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더 깊게 볼 수 없으며, 청중들은 이 이야기에 집중해서 빠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설교가가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다. 그러므로 본 설교의 표본을 보면 단순히 설교가 선포식이 아닌, 대화식으로 진행을 한다. 즉 질문과 대답이 서로 보완하면서 설교를 이끌게 되었고 이러한 방법 및 드라마틱한 설교의 진행은 청중들에게 큰 효과를 거두었다.

두 번째로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성경의 말씀을 쉽게 접목한다.

이 통(通) 이야기 설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 이야기를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 표본 설교에 사용한 ‘이미지’는 바로 ‘신호등(Traffic Light)’이다. 즉 요셉의 이야기를 신호등에 비유하

여 쉽게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이야기 설교는 성경의 내용만 전하기 위해 노력하여 이야기가 청중들에게 그 당시에 이야기로 남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청중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대입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청중들이 신호등을 볼 때마다 청중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함은 성경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삶에도 연결시켜 느끼게 된다. 본 연구자가 사용하는 이미지의 개념은 단순히 물건, 사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될 수도 있으며, 감정,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이미지의 범위는 제한이 없으며 무궁무진하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현대 사회에서 공감대를 찾는 것이 이야기 설교를 진행하는 두 번째 필수 요건이다.

그런데 이미지를 통한 설교는 먼저 이미지를 정하고 말씀에 대입하면 잘못된 해석이 등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경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순서가 중요하다. 이미지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찾는 것은 자칫하면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을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좋은 이미지를 찾게 된다면, 청중들은 그 이미지 때문에 성경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에 쉽게 성경의 이야기가 남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한 문장’의 설교로 결론을 제시하라.

본 연구자가 나미비아에서 다양한 설교 방법으로 시행해 왔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삼대지 설교도 해 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삼대지 설교는 설교를 쉽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인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세 가지의 설교 주제 내용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 더욱이 나미비아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삼대지 설교를 교인들이 따라오는 것을 더 어렵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방식보다는, 마지막으로 설교의 결론을 축약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였다. 그래서 1년간의 모든 설교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하나의 결론 문장을 항상 제시하였다. 표본 설교를 잘 보면, 마지막에 하나의 문장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된다.

“God is always with me like a traffic light.” 이 문장 하나가 청중들에게 쉽게 기억하게 되며, 이 문장을 통해 청중들은 한 주를 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이 하나의 문장은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가장 큰 하이라이트 같은 주제가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한 문장을 통해 청중들은 요셉의 이야기에 결론으로 마무리 할 수 있으며, 이야기 설교가 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마지막 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청중들에게 주게 된다면, 청중들은 이 마지막 한 문장을 설교자가 선포할 때 대부분 펜을 들게 된다. 왜냐하면, 이 한 문장에 설교의 이야기 및 자신의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설교를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청중들에게 이 통(通) 이야기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을 말해주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V 장

결과분석: 오카한자파크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 이야기

성경 통독에 대한 분석

본 연구자는 1년간의 성경 통독을 진행하였고, 총 50명에게 설문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 총 세 가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먼저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Questionnaire

A. General Questions

1. How old are you? (old)

2. What is your gender?

(1) Male (2) Female

3. How long have you been religious?

(1) not more than one year (2) 1 to 3 years (3) 3 to 6 years (4) 6 to 9 years

(5) 10 years or more (6) born-to-born beliefs

4. What is your duty in the church?

(1) layman (2) Lay leader (3) Deaconess (4) Elder

B. Questions related to reading comprehension

5. How many times have you read the Bible from beginning to end in your religious life?

(1) 1 (2) 2 to 3 (3) 4 to 5 (4) 6-7

6. How many times did you read the Bible in 2020? ()

7. What was the most deeply enlightened God's mind when he read the Bible?

Simply

Please describe it.

8. To what extent do you understand the Bible in your sermon after reading the Bible?

(1) not more than 50% (2) not more than 50 to 60%, (3) 70 to 80%, (4) not less than 90%.

C. Questions about reading the Bible and understanding sermons.

9. There are stories about the Old Testament empires of Assur, Babylon,

Persia, Hella, Rome). How much do you understand when the pastor preaches?

(1) I have no idea. (2) Understand to a certain extent. (3) I understand well.

10. When the pastor preaches about the love of Jesus in the Gospel, from the Old Testament, Are you connected to the love of God that you loved?

(1) Connect well. (2) A little bit connected. (3) I don't know. (4) No connection at all.

11. When I listen to the sermon, I think of my lack and my fault, and I think of what I need to do.

Do you have any specific aspects of your attitude or behavior?

12. Do you practice your life after listening to the preacher's story sermon?

(1) Do not practice. (2) Make a commitment to practice only when listening.

(3) Listen and do one thing. (4) Do as you say.

13. How does the preacher's story sermon describe the situation in the Bible?

(1) I don't understand at all. (2) Talking about the Bible is boring.

(3) The situation in the Bible is interesting to know. (4) It's so much fun

and I want to listen to it again.

14. What is your favorite type of sermon?

(1) Interesting sermon (2) Body-centered sermon

(3) A sermon full of flowery and easy-going.

(4) A sermon that is not heavy but can be heard with a light heart.

15. The central theme of the Bible is the connection between the Empire, the State of the Priest, and the Kingdom of God.

Do you connect to the central theme of the Bible when you listen to the sermon?

(1) I had no idea. (2) A little bit connected. (3) It's almost connected. (4) Connecting well.

16. After reading the Bible, you will be free to understand the Bible and to understand the sermon.

Please write it down.

(This questionnaire was written for the Dr. D.min thesis at Drew University.)

총 50명의 사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0대 3명, 20대 18명, 30대

12명, 40대 10명, 50대 7명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여성의 비율이 90%로이며 남성의 비율이 10%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통독을 한 횟수를 물어본 결과 1번 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로 가장 많이 있으며, 2번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그 전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50명의 사람이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 1독을 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나미비아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꼈는지 설문지를 통해서 적으라고 하였더니, 대부분 사람이 God who loves me so much, God who rules and rules the world. God is with me 등의 대답을 적었다. 대부분 대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주권자라는 내용으로 답을 적었다. 즉 대부분이 적은 문장은 성경의 한 부분을 적는 것이 아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문장으로 적었다. 따라서 대부분 교인들은 성경 전체가 한 권의 책으로 봐야 한다고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성경을 읽고 얼마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에서 80%의 성도들이 not more than 50 to 60%라고 체크를 하였다. 그리고 20%의 성도님들은 70 to 80%라고 체크를 하였다. 즉 통(通)독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성도들이 설교 말씀의 50% 이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구약의 제국에 관해서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I understand well이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80%이며, 20%의 사람들이 Understand to a certain extent이라고 체크를 하였다. 그러면서 추가로 대부분이 구약에 대해서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배움으로써, 구약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준 및 자신감이 생겼다는 말도 하였다.

신약에 부분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잘 연결되니까? 라는 질문에 100%의 사람들이 잘 연결된다고 대답을 하였다. 따라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에 접근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성경통독을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Simon 42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하였다.

When I said I would start reading the Bible, I thought I would give up after reading a little. But through this Tong method, let's read it somehow rather than giving up! I was filled with the feeling and I was so proud to read the Bible at least once.

Elizabeth 35세는 이렇게 간증을 하였다.

When I first asked to listen to the Bible, I was amazed. And I liked listening to the Bible more than reading it. It was good to know God through the Bible, and it was so good that the words of the Old Testament were connected to the New Testament in my life

Loyde 45세는 이렇게 간증을 하였다.

I have a native faith, but I've never read the whole Bible. But I was so proud and happy reading the Bible. And through this method, I'm still

reading the Bible. My goal is to read the Bible again next year.

이처럼 성경통독을 통해서 본 연구자는 3가지 변화가 있다고 정리한다.

첫 번째는 내적 변화이다.

본 연구자가 말하는 내적 변화는 모든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미비아 성도들은 대부분 포기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큰 성취를 얻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나미비아는 빈부격차가 세계 1위이다. 적게 버는 사람은 한 달에 오만 원을 벌지만 많게 버는 사람은 한 달에 오백만 원도 벌고 있다. 같은 공간이지만 전혀 다른 월급과 차이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큰 성취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 나미비아 성도님들의 성향은 쉽게 포기하고,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라고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성경 읽기를 마친 후,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지는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먼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즉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나미비아의 대부분 성도는 성경 일독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 일독을 자신이 해냈다고 생각하니, 대부분의 성도님은 또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또한, 성경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는 빈민 국가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인생에 만족하자!” 라는 심리

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자신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I know why the missionary came to Namibia.” 이 문장이 성경 일독을 한 후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문장이다. 즉 이전까지 선교사가 왜 나미비아에 왔는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알아도 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것이다.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내적 변화는 성도들의 삶의 이유를 찾게 한 것이다. 막막한 그들의 삶에 단비 같은 한 줄기의 빛이 각 성도에게 내렸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첫번째 변화였다.

두 번째는 외적 변화이다.

본 연구자가 성경 통독 프로그램 과정만 보면서 느꼈던 결과는 바로 가정의 모습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가정 구성원들이 저녁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았다. 아이는 아이대로 노는 것이 일상이었고, 남편과 아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자체가 모이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 하면서 가정들이 저녁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모든 가정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하루, 이틀, 삼일 정도 모이다 보니 가정끼리 목적의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이들도 부모님의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성경을 따라 읽기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이 하나가 되어버리니, 교회에서의 모임은 더욱더 자연스러운 모

임이 되었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모임이 잘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성경 통독 프로그램으로 인해 먼저 가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연구자의 고민은 사라져버렸다.

또한, 가정이 살아나니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아이들 모습이 달라졌다. 대부분 성도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과정을 느끼면서 진행되어졌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학교에서의 모습이 달라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이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고, 주변의 가정들도 비록 프로젝트를 참석하지 않았지만, 함께 성경을 읽는 가정도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즉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자기 삶의 모든 시간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외적 변화로 인해 그들의 삶의 가치관도 달라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일에 일을 나가지 않았다. 대부분 여자&남자 할 것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러 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누구보다 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한 청년은 나에게 “God prefers me to worship!” 이라고 간증을 한 청년도 있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었다. 사실 본 연구자도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주일에 일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어도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으로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무엇을 먹을 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 하기가 쉽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 통해 달라졌고, 그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며 일보다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어디 가든지 성경과 이어폰을 가지고 다녔다.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며, 어디서든지 성경을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 즉 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그들의 삶은 오직 자신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 고백을 한다.” 나미비아가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였는데, 성경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성경 읽기는 그들의 삶의 모습 또한 바뀌게 하였으며 그들이 어떠한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세 번째로 영적 변화이다.

본 연구자가 가장 크게 느낀 결과는 바로 영적 변화이다. 영적 변화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는 반응이라고 본다. 즉 그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께 성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아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를 생각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영적 변화라고 보았다.

Claudia 56세의 간증은 이러하다.

I've heard the word Holy Spirit a lot, but I've never felt that the Holy Spirit was with me. But the more I read the Bible, I realized what the

Holy Spirit was and why I had to pray and why I had to worship. Now, when I become lazy or weak, the Holy Spirit comes and makes me move to pray to God.

즉 그녀는 자신이 한번도 성령님에 대해서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러한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느끼지 못하였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느낀다고 표현을 하였다. 이처럼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민감함, 성령의 임재, 기도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에 민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Addy 36세의 간증문이다.

Previously, when I prayed, I only talked about what I wanted. But the Bible tells me not to pray like that. First, we must save the kingdom of God, love God, and love our neighbors. I do not know that at all and repent that I prayed to God according to my greed.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그들의 삶에 자리 잡았고, 더욱이 교회가 왜 있고, 성경이 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더욱이 그들에게 있어서 부분이 아닌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은 큰 도전이자, 큰 첫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는 이제는 성경을 부분으로 읽지 말아야 함을 느꼈으며,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을 수 있어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과정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이전부터 배열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배열을 역사순으로 재

배열함으로 다시금 성경을 더 쉽고 더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었던 모습을 회개하며, 더욱이 목회자들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성경 특정 부분만 선택을 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에 회개한다고 고백하였다. 성경 전체를 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나눔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성경을 보는 데 걸림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통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금 나미비아 교회에 희망을 보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세 가지의 변화로 인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학교가 살았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큰 힘이 있다. 성경 자체만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과정으로 모든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되었다.

통(通) 이야기 설교에 대한 분석

본 연구자는 설문지를 통해 이야기 설교에 대한 답변도 함께 받았다. 우선 이야기 설교를 들은 후에 대부분 청중은 “Listen and do one thing.”이라는 부분에 90%를 점검하였다. 즉 통(通) 이야기 설교를 들은 후에 쉽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표기를 하였다. 더욱이 통(通) 이야기 설교를 통해 어떠한 점이 좋았는지를 물어본 결과 “A sermon that is not heavy but can be heard with a light heart.”이라는 부분에 90% 이상이 체크를 하였다.

즉 통(通) 이야기 설교는 청중들에게 있어서 설교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통(通) 이야기 설교가 단순히 가벼운 설교가 아

닌 그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무언가를 느끼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이렇다.

Story preaching is the first way I heard of preaching. It was good to know exactly about the Bible while listening to the story sermon, and moreover, I found out for the first time that the sermon was this interesting. In particular, I was glad that the sermon was not confused with other stories because Preacher only talked about the Bible.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있다. 첫 번째로 설교 중 ‘성경만 이야기해서 좋았다!’ 라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전에 설교를 들어보면 다양한 예화나 다양한 이슈, 정치 이야기들을 통해 목회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주된 설교의 이야기라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고백을 하였다.

특별히 Rosa 42세 여성의 간증은 이러하다.

The advantage of story preaching is that children can listen to it together. Our children can also concentrate on the sermon, and children can listen to the Bible together with the contents of the Bible that their parents have not taught them. Therefore, Story preaching is the best way for all ages to hear.

통(通) 이야기 설교의 장점은 전 연령이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자는 주일학교를 따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 2019년부터 계속해서 어른 예배만 말씀을 인도해 왔다. 놀라운 것은, 그 예배 때 자녀들의 예배 참석률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들어도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

으며, 성경 이야기를 그만큼 쉽고 극적으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야기 설교를 통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설교가 무겁지도 않으며, 누구나 편히 들을 수 있는 설교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이 청중들은 나에게 이미지를 가져올 때마다 놀랍다! 라고 표현을 하였다.

Cuzi 49세 남성은 이야기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한 간증을 하였다.

Every time, Pastor Jun brings images according to the Bible story. The image comes as a shock to us who listen to it. Because I have never connected the Bible with such an image. I'm so curious about the image that I actually want to keep listening.

이러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접합시키는 설교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대감으로 다가왔고 설교자가 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이미지와 연결하려 하는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궁금했다고 한다. 그만큼 이미지는 설교를 집중하게 되며, 이야기 설교를 가장 완벽에 가깝게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다.

특별히 그들은 매번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한 말을 하였다. “Every time I see a traffic light, I think of the words of Sunday,” 이미지를 주었을 때 사람들은 조금 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기 쉬워지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이미지가 성경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설교에 흥분하기 시작하고, 그 설교를 평생 간직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통(通) 이야기 설교와 ‘이미지’는 함께 가야 할 도구이다. 통(通) 이야기 설교만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성경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독교를 사람들이 떠올릴 때 대부분 사람은 ‘십자가’를 떠올린다고

한다. 사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하나의 이미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오르기 이전에 ‘십자가’를 떠오르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 브랜드에는 로고가 있다. 애플(Apple) 회사에는 사과가 있으며, 나이키(Nike)에는 승리의 표시가 있으며, 에르메스(Hermes)나 루이비통(Louis Vuitton) 같은 브랜드에도 각자의 로고가 있다. 그 로고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브랜드는 계속해서 그 로고를 고집해 오고, 강조해 오고 있다. 마치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원리와 같은 원리이다.

반대로 설교자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사용하였을 때 청중들에게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별히 대부분 사람에게 얼마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100% 사람들이 쉽게 연결할 수 있다고 표시를 하였다. 이처럼 이야기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사람이 쉽게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설교자의 능력에 따라 설교를 더 쉽게 기억하고 오래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나 본 연구자의 설교는 마지막에 ‘한 문장’의 설교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낸다. 이러한 모습도 사실 오카한자파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익숙지 않은 설교 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방법이 당신에게 얼마나 오래 기억하게 하는지 물어보았다.

Jiri 25세 청년은 이렇게 간증을 하였다.

I bring a pen and paper every time I worship. And at the end, I try to write down the last sentence that the pastor gave me. When I'm having a hard time, when I meditate on this word, this last sentence is very helpful to my

life. In particular, I thought preaching was just the word of God before, but now it feels like my words.

이 청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는 설교 때마다 펜과 종이를 가져온다. 왜냐 하면, 그 마지막 한 문장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에게 매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많은 간증을 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간증을 잘하는 문화가 있다. 자연스럽게 앞에서 나와 찬양을 부르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간증한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본 연구자에게 교인들은 다양하게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간증을 하며 설교자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특히나 이 문장을 사람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한다는 것에 놀라움이 있었다. 대부분 사람에게 이전에는 지난주 무슨 설교를 들었고, 본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약 90%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줌으로써, 그 한 문장으로 인해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한 문장을 기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 설교에서의 이 3가지 박자가 함께 이루어지면 설교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듣는 청중에게 큰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통(通) 이야기 설교를 준비하고, 통(通) 이야기 설교를 1년 동안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총 3가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설교자의 변화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즉 설교자가 이야기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은 것을 느낀다. 통(通) 이야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야기 설교의 주된 내용은 바로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경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선택하여 설교자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정의를 내려 선포하는 것이 아닌, 성경 이야기 전체를 다루고 있으므로 설교자는 충분히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묵상해야 한다.

실제로 오카한자파크교회에 Lay leader Matthew는 이렇게 간증을 하였다.

It was not easy to declare the Word as a saint. It was difficult to preach because there was not much theological knowledge in particular. But after listening to the story sermon, I realized what the main content was when I was preaching and my preaching style changed completely.

Matthew의 간증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나미비아는 평신도도 설교를 많이 한다. 그리고 감리교의 Lay leader는 평신도 지도자를 뜻하고 있으므로 설교를 하는 것도 주된 역할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평신도들에게는 설교 대에 올라가는 것조차 부담이며, 신학적인 지식을 선포하는 것에서도 권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통(通) 이야기 설교는 이러한 신학적인 지식은 주된 내용이 아니다. 통(通) 이야기 설교의 주된 내용은 그날 읽은 본문의 내용 이야기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통(通) 이야기 설교는 설교자의 설교를 본질로 바꿀 수 있다. 즉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설교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설교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된 설교의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통(通) 이야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 더 관심을 끌게 될 것이며,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자가 1년간 설교를 하면서, 사실 많은 목회자가 설교를 듣기 위해 오카한자파크 교회를 찾아왔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동양인 목회자가 왔으니 대부분 목회자는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 목회자는 어떠한 신학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였던 목회자도 있을 것이며,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라고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설교하는 방법은 가장 원초적인 설교 방법을 1년 동안 전하였다. 처음 설교를 전할 때는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그저 ‘설교 듣기가 쉽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설교자는 다른 설교자가 어떤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 본 연구자가 약 30분의 설교 중 본문 이야기만 20분을 전하는 것을 보고 다른 설교자들이 모두 놀랐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준비하려고 한다 해도, 20분 동안 성경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설교자가 본 연구자의 이야기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빠르게 변화를 느꼈고, 그들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지었다. 이전에 말씀은 한 구절만 가지고 본인의 생각, 재미있는 예화, 시사, 정치 등의 주제로 설교를 이룬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들의 설교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된 말씀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읽기 시작하였으며, 깊게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성도의 변화이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유는 설교를 통해 성도의 변화되는 과정을 가장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通) 이야기 설교에서 반드시 함께 봐야 할 부분은 성도의 변화

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교가 쉽게 들린다. 이해하기가 쉽다, 기억에 잘 남는다 등의 여러 가지 설교의 반응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과연 통(通) 이야기 설교를 통해 교인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총 3가지의 반응을 통해 교인들의 성장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교인들이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대부분의 예배는 약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다. 그 중에 찬양 시간이 약 1시 20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도가 끝나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면 찬양을 부르고, 간증이 끝나면 찬양을 부른다. 그만큼 나미비아 성도들이 흥이 많고, 찬양을 부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인식에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개신교 예배에서는 말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목회자의 설교 준비 부족 및 실력 부족으로 인해, 교인들은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오히려 찬양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설교에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다.

설교를 듣기 위해, 성경을 가져오게 되며, 설교를 듣기 위해 펜과 종이를 가지고 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예배 때마다 어떠한 설교를 들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설교에 대해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야기 설교를 듣게 된 후 교인들이 서로 성경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보니 간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귀한 나눔의 시간이 생겼다. 이러한 나눔이 오히려 설교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복습의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설교자의 마지막 한 문장을 나눔으로 그들은 다짐하고, 영육이 회복되게 되었다.

마지막 성도들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예배 시간에 비중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목회자의 부족함과 설교의 부재로 인해, 찬양하는 시간이 전체 예배 시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처음에 본 연구자는 너무나도 긴 찬양 시간으로 인해 설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본 연구자가 설교 대에 선 순간, 대부분 성도는 많은 찬양으로 인해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이 문제는 본 연구자만 겪는 문제가 아닌, 대부분 선교사가 겪는 같은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성도들이 찬양과 말씀의 비중을 비슷하게 나누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찬양의 비중을 낮추고, 설교 시간을 늘려달라고 말을 한다. 이러한 반응은 아프리카에서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만큼 설교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 이야기 설교가 얼마나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이야기 설교가 충분히 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교회의 변화이다.

통(通) 이야기 설교로 인해 교회가 변화되었다. 본 연구자가 어렸을 때 만해도 부흥사라는 말이 있었다. 즉 부흥회를 할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부흥사라고 불렀다. 본 연구자가 부흥회에 참석하면 부흥사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이러한 성장이 멈추었을까? 본 연구자는 그 문제를 설교자의 설교가 그만큼 힘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싶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설교가 다시금 힘을 얻어야 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러한 변화가 있을 줄을 기대하지 못하였다. 1년간의 통(通) 이야기 설교로 인해, 현재 오카한자파크 교회는 초기 40명의 성도에서 약 80명의 성도로 부흥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80명의 아이 이었다가, 이제는 약 300명의 아이로 부흥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1년만에 있었던 일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통(通) 이야기 설교였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장 큰 브랜드였다. 오카한자파크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오카한자파크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교회의 가장 큰 부흥을 이끄는 방법은 바로 이야기 설교였다.

사실 본 연구자가 느꼈던 결과는 바로 ‘예수님처럼 설교했더니 가능해졌다!’ 라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설교하면 된다. 그래서 오카한자파크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으며, 가장 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

오카한자파크 교회에서 가장 크게 앞세우는 브랜드는 Story Church(이야기

교회)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바로 오카한자파크 교회가 세우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가장 듣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사진6> 오카한자파크 어린이 주일 학교



제 VI 장

결 론

요약과 평가

지금까지 성경통독과 통(通) 이야기 설교를 통해 아프리카 나미비아 오카한 자파크 교회의 어떠한 영향과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성경을 통독해 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 설교를 진행해 보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영향이 오히려 한국보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대륙은 식민지국가라 이미 이전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온 나라가 많이 있고 대부분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인식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방법과 결과를 통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나라가 아프리카 나미비아일 것이고, 그 시작점은 바로 오카한자파크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현재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성경을 잃어가고 있으며, 설교자의 설교가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회의 역할과 기능으로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브랜드인 성경의 이야기가 회복 되어야 한다. 예수님 또한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켰듯이 물질이 아닌, 말씀의 본질로 교회가 다시

금 회복되어야 한다.

더욱이 아프리카 대부분 목회자는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어 신학을 공부하지 못한 목회자가 많이 있다. 목회자들이 신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은 있지만 목회자들이 다른 신학적인 요소를 배우려는 경향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학문을 배우기에 앞서, 기독교가 가장 회복해야 할 성경 말씀이 이 땅에서 반드시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은 통(通) 이야기 설교를 통해 설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며, 이 설교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다시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운동선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기본이 중요하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기본부터 시작하듯이, 나미비아 기독교 지금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금 기본부터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성경 통독을 기반한 통(通) 이야기 설교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나미비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미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통한 통(通) 이야기 설교의 장점 및 영향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으며, 통(通) 이야기 설교를 통한 교인들의 변화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와 영향을 발판 삼아 나미비아 기독교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성경 통독과 통(通) 이야기 설교를 통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한 오카한자파크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결론과 제언

본 연구자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즉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히 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

닫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주관자라고 초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 통독이다. 이러한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으며 우리의 환경도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기,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서로의 잘못을 비난하며,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되면 어떠할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들게만 만드는 시기가 아닌 우리와 하나님을 더 가깝게 연결해주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나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초대해야 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조병호의 성경 통독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성경 통독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며, 나미비아에도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경 통독을 기반한 통(通) 이야기 설교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성경 통독은 통(通)이야기 설교를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프리카 교회는 목회자의 권위가 상당히 높다. 마치 한국의 1960~1980년대를 보는 것 같다. 그 당시 목회자의 말씀에는 큰 권위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미비아에서도 목회자의 말씀에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나미비아 교회가 빨리 깨우치고, 나미비아 목회자들은 하루빨리 통(通) 이야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세상의 이야기로 설교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하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위이다.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먼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 권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된다.

통(通) 이야기 설교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다. 하지만 통(通) 이야기 설교는 요즘 생긴 단어가 아니다. 사실 이 단어는 예수님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이다. 그 방법을 우리가 전해지지 못하게 하였고, 오히려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문제는 기존에 사용하던 설교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일 것이다. 사실 본 연구자도 이 말을 들으면 표정은 그저 덤덤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한다. 그만큼 설교자는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알아봐 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크게 기뻐한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기쁨과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설교는 그저 목회

자의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목회자의 정치적인 사상, 맹목적인 주입식 신앙 등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나 이러한 설교 방식이 회복되지 않는다 보니, 교회는 점점 다른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른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교인이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설교이다. 특히나 본 연구자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통(通) 이야기 설교가 교인들을 정착하게 할 것이다. 많은 목회자가 말하길 “세상의 교인들이 점점 똑똑해 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더 세상의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쌓아야 설교를 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지식을 노력한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회복될까?

화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제는 “이미 망가져 있는 그림을 살려보라!” 라는 과제이다. 대부분 화가들이 말하길 이미 망가져 있는 그림을 회복하는 것 보다 “다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맞는 말이다! 이미 한국 교회는 잘못된 스케치북안에서 계속해서 그림을 수정하고, 수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수정해야 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수정을 하려고 해도, 결국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그림보다는 못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한된 수정은 결국 더 큰 창조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로운 흰 종이에 어떻게 그럴지 고민하는 것부터 더 큰 창작을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라면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통(通) 이야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처럼 교인들에게 통(通) 이야기 설교

하기! 예수님 하셨던 설교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되기! 이러한 방법이 결국 지금의 나미비아 교회를 살릴 수 있으며, 한국 교회 또한 살릴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자는 통(通) 이야기 설교를 해 본 사람만 그 맛을 알 것이라고 보며, 그 맛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통(通) 이야기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마치 아무리 아이에게 초콜릿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초콜릿을 먹어 보지 못한 아이는 절대로 초콜릿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한번 그 초콜릿 맛을 본 아이, 초콜릿의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된 아이만이 계속해서 초콜릿을 찾게 되며 그 초콜릿을 통해 또 다른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通) 이야기 설교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복음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이 방법만이 지금의 나미비아 교회를 살릴 방법이라 생각하며,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설교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모든 설교자가 성경의 이야기꾼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성경의 이야기꾼은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재미있으며, 깊게 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목회하는 것에 가장 큰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교인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는 성경의 이야기꾼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의 권위와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와 목회자들이 성경의 이야기꾼이 되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할 수 있어야 하며,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通) 이야기설교를 통해 이 땅이 반드시 회복되길 바라며, 아프리카 나미비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회복될 때 나미비아 교인들의 삶은 더욱더 하

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통(通) 이야기 설교로 교회가 하루 빨리 회복되길 소원한다.

참고 문헌

외국어 서적

Chur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Hou: Touch Publications*, 1995.

Leonard Sweet,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Leonard Sweet. *The Church of the Perfect Storm*.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William A. Beckham. *The Second Reformation; Holistic Small Groups Reshaping the Jenkins, Daniel. Prayer and the Service of God*. London: Faber & Faber, 1994.

Richardson, Alan. A,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Bible*. London: SCM Press Ltd, 1957.

Richard Lovelace. *Dynamics of Spiritual Life-An Evangelical Theology of Renewal*, Downers Grove, IL: IVP, 1979.

번역 서적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번역. 서울: IVP, 2007.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번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MacArthur, John. *성경 이렇게 믿어라*. 김태곤 번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Wilmington, H. L. *종합성경연구III*. 박광철 번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한국어 서적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10.

김충환.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노우호.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성경통독집*. 서울: 하나, 1992.

- 신동우. *선교학*. 서울: 예루살렘, 1993.
- 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서울: 쿤란출판사, 2001.
-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마음훈련*.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성경즐기*.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쉬운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8.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 조병호. *통 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 조병호. *마음과 생각 11/12월호*. 서울: 통독원, 2017.
- 조병호. *역사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대행진 1년 1독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논문, 잡지

-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신학과 세계* 제84호(2015), 526-554.
-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제94호(2018), 2018.
-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제81호(2014), 297-324.
-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교수학습에서의 “이야기” 의 재발견.” *신학과 세계* 제75호(2012), 311-335.

웹사이트

<http://www.livestory.net/>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Kyungchan Jun

Place and Date of Birth: Cheorwon, South Korea, November 9, 1988

Parent's Names: Daekwan Jun and Aeseon Choi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Cheorwon High School 12, Geumhak-ro 251beonan-gil, Cheorwon-eup, Cheorwon-gun, Gangwon-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5, 2007
Collegiate: Korean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Feb 22, 2013
Graduate: Korean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Th.M	Feb 27, 2016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Kyungchan Jun

Name typed

March 12, 2021

Date